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A prototype for legal fairness in Korean society

강태경 · 최영신 · 김지영
석혜원 · 최재목

KICJ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연구책임자

강 태 경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최 영 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 지 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석 혜 원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최 재 목 영남대학교 철학과 교수

연구지원

이 다 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조사연구원

‘공정’이라는 개념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토대로 공정성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제목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이지만, 연구의 초점을 ‘법적 공정성’이 아닌 더 넓은 개념인 ‘공정성’에 두었다.

본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를 수집하는 상향식 접근법인 프로토타입 분석을 통해 공정을 정의하고 다른 관련 구성 요소와의 연관성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 사회에서 ‘공정’과 관련지어 생각되는 특징의 목록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특징들의 차등적 구조를 파악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와 이전 문헌을 바탕으로 공정의 잠정적 정의를 ‘**기회의 평등**’, ‘**준칙 적용에서의 공평무사와 정직한 태도**’, ‘**투명한 정치제도**’로 제안하였다. 공정은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회의 평등,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규칙의 공정하고 정직한 적용, 정치적 차원에서는 투명한 정치 시스템으로서의 민주주의와 관련 깊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진은 공정 개념에 대한 이와 같은 다면적·다층적 이해가 공정성에 관한 학술적 논의뿐만 아니라, 형사·법무정책 영역에서의 공정성 제고 방안 모색과 같은 정책적 논의에 유익한 참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기초 연구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확대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2023년 12월

연구진을 대표하여

연구위원 강 태 경



목 차

국문요약	1
------------	---

제1장 강태경·최재목

서론	3
----------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5
------------------------	---

제2절 연구의 내용	7
------------------	---

제2장 최재목·강태경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9
---------------------	---

제1절 동북아시아 지적 전통에서의 ‘공정’ 개념	11
----------------------------------	----

1. ‘공(公)’ 개념의 배경: 이익[利]과 의리[義]	11
--------------------------------------	----

2. ‘공정(公正)’의 어원과 의미	14
---------------------------	----

3. 공(公)의 확대로서 공정(公正)	18
----------------------------	----

4. 소결	20
-------------	----

제2절 공정성의 독자적 의미	21
-----------------------	----

1. 공정과 평등	22
-----------------	----

2. 공정과 공평	23
-----------------	----

3. 공정과 정의	24
-----------------	----

4. 소결	26
-------------	----

제3장 강태경

공정성 인식 연구 방법 27

제1절 공정성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29

1.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9
2. 한국리서치,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2018)』 31

제2절 공정성 인식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35

1. 하향식 접근법 35
2. 상향식 접근법 36
3. 상향식 접근법으로서의 프로토타입 분석 42

제4장 강태경·석혜원·김지영·최영신

공정성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47

제1절 연상어 조사 49

1. 조사방법 49
2. 조사대상자 특성 52
3. 공정성 평가 55
4. ‘공정’ 연상어 69

제2절 연상어 관련성 조사 85

1. 조사방법 85
2. ‘공정’ 표상의 차등 구조 86

제5장 강태경

결론 95

제1절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 97

1. 핵심적 특징 97
2.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 99

제2절 한계점 및 제언 100

참고문헌	103
Abstract	109
부록: 조사문항	111

표 차례

[표 2-2-1] 공정성 개념의 다양한 유형 분류	21
[표 3-2-1] 권리와 의무의 정의	38
[표 3-2-2]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구성된 코딩 범주	40
[표 4-1-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53
[표 4-1-2]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54
[표 4-1-3]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	56
[표 4-1-4]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 ANOVA 결과	57
[표 4-1-5] 연령, 경제적 여유 집단 간 공정성 평가 점수 비교 사후분석 결과	58
[표 4-1-6]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59
[표 4-1-7]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60
[표 4-1-8] 공정성 평가 주제어(빈도 ≥ 10)	64
[표 4-1-9] 공정성 평가 근거 이론적 코딩(빈도 ≥ 10)	65
[표 4-1-10] 정치성향별 공정성 평가 근거 주제어(빈도 ≥ 10)	67
[표 4-1-11] 정치성향별 공정성 평가 근거 이론적 코딩(빈도 ≥ 10)	68
[표 4-1-12] 공정성 연상어(빈도 ≥ 20)	70
[표 4-1-13]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빈도 ≥ 5)(빈도 중간값=9)	71
[표 4-1-14] 공정성 연상어 및 최우선 연상어 빈도	73
[표 4-1-15] 정치성향별 공정성 전체 연상어(빈도 ≥ 20)	75
[표 4-1-16] 정치성향 간 공정성 전체 연상어 응답 비율 차이	76
[표 4-1-17] 정치성향별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 응답 빈도	77
[표 4-1-18] 군집 유형별 빈도	80
[표 4-1-19]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82
[표 4-2-1] 공정성의 중심 특징 연상어 빈도 및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86
[표 4-2-2] 공정성의 주변 특징 연상어 빈도 및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87
[표 4-2-3] 보수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24)	89

[표 4-2-4] 보수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24)	90
[표 4-2-5] 진보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35)	91
[표 4-2-6] 진보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35)	91
[표 4-2-7] 보수/진보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 순위 비교	92
[표 4-2-8] 보수/진보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 순위 비교	93



그림 차례

[그림 3-1-1] 사회 공정성 인식 연도별 추이	30
[그림 3-1-2]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	34
[그림 3-1-3] 부모 배경*취업기회 공정성	34
[그림 3-1-4] 개인 노력*취업기회 공정성	34
[그림 4-1-1] 정치성향 집단별 도덕적 기반 고려 정도	62
[그림 4-1-2] 공정성 평가 근거에 사용된 단어들의 워드클라우드	63
[그림 4-1-3] 공정성 연상어 워드클라우드(빈도 ≥ 20)	70
[그림 4-1-4]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 워드클라우드(빈도 ≥ 5)	72
[그림 4-1-5] 군집 수에 따른 HC Index	79
[그림 4-1-6] 연상어 프로파일	80

□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 연구필요성

- ‘공정(公正)’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가 부족
- 공정의 애매모호성은 일상적 맥락에서뿐만 아니라 학술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로

○ 연구목적

- 공정(公正)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탐색하여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정 개념이 무엇인지 파악
-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공정에 대한 잠정적 정의 제시

□ 연구방법 - 프로토타입 분석

○ (연구1) 자유연상을 통한 ‘공정’ 연상어 수집

- 전국 성인 남녀 1,115명(남 563명, 여 552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오르는 단어를 기재하도록 함
- 응답자가 기재한 단어(또는 어구)를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해당 범주를 잘 나타내는 연상어를 정하여 전체 연상어 목록 생성

○ (연구2) ‘공정’ 표상의 차등 구조 탐색

- 전국 성인 남녀 1,072명(남 559명, 여 51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 자유연상을 통해 수집한 각 연상어와 공정 개념의 관련성을 평가하도록 함
- 관련성 평정치를 기준으로 공정의 중심적 특징과 주변적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 분류
- 연상어 빈도(연구1) 순위에서 고빈도 연상어이면서 동시에 관련성(연구2)에서 중심적 특징으로 분류되는 연상어를 최종적인 중심적 특징 분류

2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 주요 연구내용

○ ‘공정’ 개념의 중심 특징

- 고빈도 연상어(연구1)이며 동시에 중심 특징(연구2)으로 분류된 것은 투명성, 형평, 준칙, 평등, 정의, 정직, 공평무사, 민주주의, 신뢰, 사법, 분배, 경쟁
- 연구 1에서 저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준법, 법치, 객관성, 도덕, 공공성, 타당성, 합리성, 권리가 중심 특징으로 평가됨
- 연구 1에서는 고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차별, 정치, 부정부패, 자유, 수용성, 가치가 주변 특징으로 평가됨

○ ‘공정’ 개념의 잠정적 정의

- 개인적 차원에서 ‘기회의 평등’, 관계적 차원에서 ‘준칙 적용에서의 공평무사와 정직’, 정치적 차원에서 ‘투명한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 의의

○ 데이터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여 ‘공정’의 일상적인 활용에 근접한 결론 도출

- 공정성 인식에 관한 설문 개발 시 반영해야 할 개념적 구성요소 확인
- 공정에 대한 인식의 문화차 연구로 확대

○ 공정이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단서 제공

-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실현, 관계적 차원에서 차별 없는 대우, 정치적 차원에서 공적 신뢰 구축에 기여

○ 공정과 ‘평등’, ‘공평’, ‘정의’의 상이점을 파악할 수 있음

- 기회의 평등/사법의 평등은 중심성이 높지만, 결과의 평등은 중심성이 낮음
- 공평무사한 태도가 적용되는 영역이 준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준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전제함
-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공적 신뢰의 근거인 공정은 필요조건

제 1 장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서론

강태경 · 최재목

제1절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탐색하여 ‘공정’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 ‘공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定義)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에 본 연구에서는 ‘공정’ 개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토대로 공정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아울러 본 연구의 제목이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이지만, 연구의 초점을 ‘법적 공정성’이 아닌 더 넓은 개념인 ‘공정성’에 둔 점을 미리 밝혀둔다. 학술적으로도 공정성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법적 공정성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공정’ 개념에 대한 논란을 가중하는 꼴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적 공정성에 대한 연구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공정’ 개념 자체를 경험적으로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 정치, 법, 경제, 언론, 교육, 노동, 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고, 그에 따른 당연한 귀결로 ‘공정성’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이렇게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군 최근의 지배 담론은 공정성이다. 이에 대해 여러 대응책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다. 정의와 공정의 문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0년 8월 15일 경축사에서 ‘친(親) 서민 공정사회’를 언급한 뒤 한국 사회의 핵심 화두가 됐던 바 있다.

이후에도 논의는 다시 다양하게 지속되었다. 예컨대 역사를 통해 성공한 국가의

조건을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 보는 경우,¹⁾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을 ‘공정국가’로 보는 경우,²⁾ 그래서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갈등 원인을 공정하지 않은 사회 제도에 있다고 보고 제도 구축에 주목하는 입장,³⁾ 결과 중시와 경쟁 중심 사회에 대한 반성의 입장,⁴⁾ ‘공정 경제가 공정사회를 만든다’는 입장,⁵⁾ 서열과 능력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교육과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입장⁶⁾ 등 다양한 관점이 공존한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여성할당제, ‘이대남’ 논란 등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의 공정성 관념은 ‘능력주의적’ 공정성이라고 평가된다.⁷⁾ 청년층에서 회자되기 시작하여 사회적 담론이 된 ‘수저계급론’은 ‘능력주의적 공정성’을 향한 열망과 충돌한다. 부모의 배경과 연줄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의 조건이라는 인식이 팽배하고, 불평등 해소 방안으로 제안되는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긍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기도 한다.⁸⁾ 한국리서치가 2018년 발표한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분배에 있어 산술적 평등보다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개인 능력과 노력에 따라 보수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 66%”로 차등분배를 선호하는 응답이 전 계층 및 사회집단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⁹⁾

한편 공정성 문제는 사회·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법적 영역에서도 주요한 화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1,770명 중 70% 이상이 돈, 권력 등에 따라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법원의 재판 및 판결은 53.4%가 공정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1) 박지향,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김영사, 2021).

2) 남기엽,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개마고원, 2010). 아울러 박경귀, 『공정이 먼 저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박경귀가 답하다-』(가나복스, 2019).

3) 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대영문화사, 2012).

4) 상상시퀀스, 『공정의 함정』(좋은땅, 2021).

5) 이상직, 『公正』(비타베아타, 2019) 참고.

6) 전경원, 『공정교육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좋은땅, 2021)와 장은주,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피어나, 2021).

7)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 (2021), 1-39면.

8)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2018년 2월)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한국리서치, 2018), 4-5면.

9) 한국리서치, 위의 글, 4면.

경찰수사의 경우 48.7%, 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48.9%가 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¹⁰⁾

그러나 공정이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사회윤리 원칙으로 부각되었지만 공정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상적으로는 공정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근처에 공정 개념의 불투명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된다.¹¹⁾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개념을 정의, 평등, 공평 등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며, 자기의 주관적인 윤리적 견해를 투영하기까지 한다.¹²⁾ 더욱이 공정의 애매모호성은 일상적 맥락에서만 뿐만 아니라 학술적 맥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능력주의’가 공정 개념에 의해서 정당화되지만 이때 공정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는다. 윤리학적 관점에서는 공정을 ‘기회의 평등을 전제하는 합목적적 공평성’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¹³⁾

제2절 연구의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정성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간략하게 한다. 우선 동북아시아 지적 전통에서 공정의 의미를 알아본다. 공정 개념에 대한 국내 논의는 주로 서구 이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본 연구에서는 서구의 개념어인 ‘페어니스(fairness)’가 소개되기 전부터 동북아시아에서 사용하던 ‘공정(公正)’이라는 낱말의 어원과 의미의 확대를 추적한다. 다음으로 공정과 혼용되는 평등, 공평, 정의와 공정을 비교함으로써 공정의 독자적 의미를 탐색한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에 적용할 프로토타입 분석(prototype analysis) 방법을 소개한다. 공정성 인식에 관한 대표적인 경험적 연구 사례를 소개하고, 이 연구들이 취하고 있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의 문제점을 검토한다. 상향식(bottom-up) 접근법을

10) 신의가·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11) 정원규, “공정 개념의 철학적 재구성: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 가능한 공정의 의미 탐색”, 『윤리학』 11(1) (2022), 1-23면.

12) 정원규, 위의 논문, 2면.

13) 정원규, 위의 논문, 1면.

8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활용한 연구 사례와 상향식 접근법의 하나인 프로토타입 분석 방법을 소개한다.

제4장에서는 프로토타입 분석 방법을 활용한 공정성 연상어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연상어의 빈도 분석을 통해서 공정과 관련된 특징 목록을 추출하고, 연상어에 대한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상어를 중심적 특징과 주변적 특징으로 분류한다. 응답자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중심적 특징의 목록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지는지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공정성 연상어 중 핵심적 특징을 바탕으로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정성 연상어 중 핵심적 특징이 ‘공정’ 개념과 어떠한 의미적 관계를 가지는지 해석한다. 그리고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의 몇 가지 장점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한다.

제 2 장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최재목 · 강태경

제2장

‘공정성’이란 무엇인가?

제1절 | 동북아시아 지적 전통에서의 ‘공정’ 개념

이 절에서는 동북아시아 지적 전통에서의 ‘공정’ 개념을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한자문화권에서 ‘공정(公正)’은 서구문화권의 ‘fairness’의 번역어로 사용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낱말이었고, ‘공(公), 공공(公共), 공평무사(公平無私), 중용(中庸)’ 등 공정성과 관련된 다수의 개념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공(公)’과 ‘사(私)’의 어원(語源)을 출발점으로 삼아 동북아시아 지적 전통에서 공정성과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1. ‘공(公)’ 개념의 배경: 이익[利]과 의리[義]

공(公), 공평(公平), 공정(公正)이라는 말이 일찍부터 중요한 개념이 된 것은 사적 욕심에 따른 판단이나 행위로 인해 사태, 사안이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편파적, 일방적인 것으로 돼버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사적 욕심으로 인한 판단과 행위이다.

『논어』에서는 소인(小人)과 군자(君子)의 대비를 통해 공적, 사적인 기준을 알려준다. 공자는 “이익(利)에 따라서 행동하면 원한(怨)을 사는 일이 많아진다.”¹⁴⁾고 했다. 그래서 공자는 “이익이 될 일을 보면, 의리를 생각하라(見利思義)”¹⁵⁾고 하였다. 이렇듯 군자는 사적인 ‘이익(利)과 혜택(惠)’보다 공공과 공동체의 ‘도덕(德)과 의리(義)’를 생

14) 『論語』 「里仁」, “子曰, 放於利而行, 多怨.”

15) 『論語』 「憲問」.

각하니 공정한 입장에 서게 된다. 반면에 평소 생활에서 소인은 자신에게 이익과 혜택이 있는지를 생각한다. 물론 이익과 혜택 그리고 도덕과 의리의 대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와 같은 공동체 내에서도 적용된다.

‘의리(義理)’는 ‘사건이나 사물 그리고 행위의 마땅함, 옳음’을 뜻하는 ‘의(義)’와 ‘리(理)’가 결합된 말이다. 맹자는 인간 본래의 마음 바탕인 자연 감정에 들어 있는 도덕 감정의 결을 발견하고 그것을 갈고 닦아 인간의 ‘마땅함, 옳음’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도덕 감정이란 인간의 내면에 들어있는 네 가지 단서, 즉 ‘사단(四端)’을 의미한다. 이 사단을 확충하면, 자연 감정인 일곱 가지의 감정, 즉 칠정(七情: 喜怒哀樂愛惡欲)이 인의예지(仁義禮智)라는 도덕으로 향해갈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순자(荀子)는 “옳음은 리이다(義, 理也)”,¹⁶⁾ “옳음이란 리에 따르는 것이다(義者, 循理)”라고¹⁷⁾ 하였다. 이렇게 보면 ‘의’ 자체에 이미 ‘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의리라는 말은 ‘의’가 가진 ‘리’의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리의 뜻은 원래 ‘옥(玉)의 결(珣)’을 의미했다. 옥의 원석(原石)에 들어 있는 고운 결을 잘 살려서 ‘갈아야=다스려야’ 귀하고 값진 물건이 된다. 이렇게 ‘옥의 결’에서 (옥의 결을) ‘다스리다’로, 다시 그 뜻이 점점 확대돼 사물의 이치(理致), 도리(道理), 원리(原理)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사물의 결(질서, 원리, 패턴 등)을 발견하고 따르는 행위는 매우 구체적인 것이다. 퇴계 이황이 “매사에 옳은 것(凡事之是者)”¹⁸⁾이 ‘리’라고 생각했듯이, 도(道)가 ‘총칭(總稱)’(=원론·총론)으로서 추상적인데 비해, 리는 ‘조리’와 ‘도리’로서 세부사항(각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것이다.¹⁹⁾

리(理)는 세부사항의 문제이기에 절차적, 형식적 엄격성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이치를 따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시비를 거는’ 일처럼 느껴진다. ‘이치를 따지는 것=시비를 거는 것’에는 ‘A는 A(A=A)’라는 식의 ‘명분론(名分論)’을 감추고 있다. 이것은 마치 공자가 “임금은 임금이고(답고), 신하는 신하이고(답고), 아버지는 아버지이고(답고), 아들은 아들이어야(다워야) 한다.”²⁰⁾고 말하는 것처럼 명분은 엄격성을 띤다.

16) 『荀子』 「大略」.

17) 『荀子』 「議兵」.

18) 『退溪先生年譜』(卷1), “一日 將理字問松齋曰 凡事之是者是理乎. 松齋喜曰汝已解文義矣.”.

19) 고사가 시로(지음)야구마코토·최재목·이광래(옮김), 『근대라는 아프리카』(이학사, 2007), 133면의 각주(6) 참조.

20) 예컨대 ‘君君…’에 대해, “임금은 임금이고”, “임금은 임금답고”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전자

이처럼 중국 고전에서는 이익은 사적인 것이고, 의리는 공적인 것이었다. 그래서 공과 사는 대립적인 구도로 설정되기 쉽다. 특히 성악설을 주장하는 순자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욕망을 부정하는 방향에서 '사'를 이해하고 있다. 이렇듯 '이익(利)과 의리(義)의 대항'이라는 기본 형식은 전근대적 중국 및 동아시아의 지성사에서 일반적인 추세로 자리해 있었다.

한편 근대적 의미에서 '공'과 '사'를 대립시키는 어법은 후루타히로키요시(古田裕清)의 다음과 같은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 메이지 시대 이후 구미어 번역을 통해 널리 퍼졌다고 할 수 있다.

'공'은 '私'의 반대말이다. 현대의 우리는 '私'는 개인에 관한 일이고, '公'은 국민 전체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로 '공인(公人)'과 '사인(私人)'의 구분이 화두가 되겠지만 '공인(公人)'이란 국민 전체에 봉사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위치를 말하며 '사인(私人)'은 공무에서 벗어난 개인을 말한다. '공(公)'과 '사(私)'를 대립시키는 어법은 특히 메이지 시대 이후, 구미어 번역을 통해 널리 퍼졌다. '공(公)'은 독일어 öffentlich(영어와 프랑스어 public), '私'는 독일어와 프랑스어 privat(영어 private)의 번역어이다. 참고로 '공무원'은 독일어 die öffentlichen Dienstleistenden을 번역해서 만들어진 단어이다. ... 현대의 우리는 '공'이라는 말로 '국민 전체에 관한'이라는 의미를 이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öffentlich의 의미 중 하나를 계승한 것이다. 그러나 '공'과 öffentlich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이 차이는 '공'이라는 한자의 역사에 있다. ... '공'이라는 글자는 중국에서는 고대로부터 관직을 가리키는 호칭으로 사용되어왔다. ... 이 용어법이 일본에도 전해져, 일본에서는 천황을 가리켜 '공'자가 쓰였다('오오야케'라고 혼독한다). 또한 천황을 섬기는 관(官)에 대해서도 '공'자가 쓰였다. ... 이러한 오랜 역사를 가진 '공'이라는 한자가 메이지 시대에 이르러 öffentlich의 번역어로 쓰이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인(私人)'과 구별되는 '공인(公人)'은 메이지 시대의 용어법으로는 '천황에게 쓰일 수 있는 관직의 신분인 자'를 의미했다('私人'은 이러한 관직에서 벗어난 단순한 개인을 말한다). ... 이렇게 생각하면, 일본어 '공'은 독일어 öffentlich와는 상당히 다르다. ... 그러나 태평양 전쟁 이후 일본 헌법은 천황주권에서 국민주권으로 변경되었다. 이것과 궤를 같이하여 '사'와

는 아무리 무능한 임금이라도 형식적 지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순자의 '반혁명사상'으로 발전하고, 후자는 임금이 임금 노릇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혁명을 할 수 있다는 맹자의 '혁명사상'으로 발전하게 된다(이기동(역해), 『論語講說』(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355면 참조).

대비되는 ‘공’은 ‘천황(을 섬기는 官)에서 ‘주권자인 국민 전체’로 의미를 바꾸었다. … 또 öffentlich에는 ‘열린’에서 더 나아가 ‘대중에게 노출된’이라는 의미의 확장도 있다. … 서구에서는 오히려 모든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어 누구의 눈에도 명백히 드러내는 것(공개하는 것)이야말로 긍정적인 것이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겨진다. … 이러한 미덕관으로는 좀처럼 부정부패도 일어나지 않는다.²¹⁾

2. ‘공정(公正)’의 어원과 의미

‘공정(公正)’이란 말은 기본적으로는 ‘공’을 주축으로 하며 공의 성격과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바르다, 곧다’는 뜻의 ‘정(正)’ 자를 뒤에다 붙인 것이다. 이에 ‘공정’이라는 낱말의 연원을 살피기 위해서 ‘공(公)’과 ‘정(正)’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가. 공(公)과 사(私)

‘공(公)’은 ‘사(私)’라는 말과 대비를 이루며 동아시아 지성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거론돼 왔다. 공을 ‘공평하다’라거나 ‘공변되다’라고 읽는다. ‘공평하다’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르다’의 뜻이고, ‘공변(公遍)되다’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두루하다’는 뜻이다. 공(公) 자의 팔(八) 부분은 원래 ‘사물이 반으로 쪼개진 모습’을 그린 것으로 ‘나누다’라는 뜻을 담고 있고, 사(私) 부분은 팔을 등글게 안으로 ‘에워싸서(環)’ 무언가를 ‘자기 것으로 차지한’ 모습을 담고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자서(字書)인 후한(後漢)의 허신(許慎, 58?~148?)이 엮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나오는 공(公)의 의미는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平分)’이며 사사롭게 취하는 것을 ‘등지는 것(背)’ 것, 즉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아울러 ‘사(私, 私)’를 등지는 것을 공(公)이라 한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고대 중국의 정전제(井田制)를 그 논거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전제의 관점에서 공은 사적인 경제적 ‘이익’ 추구에 부수되는 공적인 세금 납부와 관련된다.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시행되었다는 정전제는, 토지를 우물 정(井) 자로 9등분하고, 그 중 ‘가운데 토지’인 ‘공전(公田)’을 공동으로 경작하여 그 소출을 제후에게 세금으로 납부하는 토지제도

21) 古田 裕清, 『翻譯語としての日本の法律用語: 原語の背景と欧州の人間観の探求』(中央大學出版部, 2004), 143-148면.

였다. 여기에서 공전은 '사적으로 손댈 수 없는 영역'이 되고, 공전을 뺀 나머지 여덟 구역은 각각의 경작자에게 분배된다.²²⁾

이처럼 중국 고대에 있어 공과 사는 기본적으로 사회와 정치적 영역에서 개인-사적인 것과 그것을 넘어선 공적-공동-공공 영역의 구별에서 나온 것이다. 예컨대 공적인 영역은 사적인 것과 거리가 멀며 함부로 사적인 감정, 태도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었다. 『논어』에서도 이처럼 공과 사를 구별하는 장면이 잘 나와 있다.

“자유가 무성(武城) 지방의 장관이 되었다. 그러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네가 쓸 만한 사람을 찾았느냐?” 자유가 대답했다. ‘예, 담대멸명(澹臺滅明)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름길로 다니지 않고, 공적인 일이 아니면 아직 저의 집에 온 적이 없습니다.”

子游爲武城宰，子曰，女得人焉爾乎，曰，有澹臺滅明者，行不由徑，非公事，未嘗至於偃之室也。²³⁾

한편 『여씨춘추(呂氏春秋)』 「귀공(貴公)」에서는, 특정인에게 호의나 호감을 보이는 '편사(偏私)'와 달리 '공(公)'은 '치우치지도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음(無偏無黨)'이라고 규정된다. 왕의 자리는 치우치지도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는 공평무사의 자리에 서야 한다. 여기서 공정한 사회가 만들어진다.

“옛날 선대의 성왕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는 반드시 공(公)을 앞세웠으니, 공을 실천하여 천하가 태평하였다. 태평은 공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한번 옛날의 기록들을 시험삼아 살펴보자. 천하를 얻은 자 많았거니와 그들이 천하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공을 실천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이 천하를 잃었던 것은 꼭 어디엔가 치우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경(書經)』 「홍범(鴻範)」편에서 말하고 있다. 치우치지도 않고 패거리를 짓지 않으니 왕도가 탕평하도다. 기울지도 않고 쏠리지도 않으니 왕의 의로움을 따르는구나. 편애하지도 않으니 왕의 도리를 밟는구나. 미워하지도 않으니 왕의 길을 따르는구나. 천하는 한 사람의 천하가 아니라 천하(모든 이들)의 천하인 것이다. 음양의 이치를 이루는 것은 한 족속만을 기르려 해서가 아니고, 감로(甘露)가 내리거나 때맞춰 비가 오는 것은 사물을 하나만 편애해서가 아니다. 만 백성의 주인은 어떤 한 사람만을

22)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정전제(井田制)” 검색([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0%95%EC%A0%84%EC%A0%9C\(%E4%BA%95%E7%94%B0%E5%88%B6\)](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0%95%EC%A0%84%EC%A0%9C(%E4%BA%95%E7%94%B0%E5%88%B6))), 최종 접속일 2023. 10. 25.) 참조.

23) 『論語』 「雍也」.

위하지 않는다.”

四曰. 昔先聖王之治天下也, 必先公. 公則天下平矣. 平得於公. 嘗試觀於上志, 有得天下者眾矣, 其得之以公, 其失之必以偏. 凡主之立也, 生於公. 故鴻範曰, 無偏無黨, 王道蕩蕩, 無偏無頗, 遵王之義. 無或作好, 遵王之道, 無或作惡, 遵王之路. 天下非一人之天下也, 天下之天下也. 陰陽之和, 不長一類. 甘露時雨, 不私一物, 萬民之主, 不阿一人.²⁴⁾

『논어』에서 공자는 “공정하면 모두가 기뻐한다(公則說).”고²⁵⁾ 말한다. 이렇게 천하 만민이 기뻐하는 공정한 사회가 대동사회(大同社會)이다. 아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공자는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되는 대동사회가 공평무사의 공정 사회라고 보았다. 이것은 유교적 이상이자 동북아 사회의 공정성 실현의 이상 사회로 보아도 될 것이다.

“대도가 행해질 때에는 천하 사람들이 모두 공정하여, 어질고 재능 있는 사람을 뽑고 충신을 익히고 친목을 다졌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기 친족만을 친하게 대하지 않고 자기 자식만을 사랑하지 않으며, 늙은 사람은 편안히 생을 마감하고, 장성한 사람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홀아비·홀어미·고아·병자가 모두 봉양을 받았다. 이 때문에 간사한 모략이 막혀 나오지 않고 도적과 난적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문을 열어 놓고 닫지 않았으니 이를 대동(大同)의 세상이라고 한다.”

大道之行, 天下爲公, 選賢與能, 講信修睦, 故人不獨親其親, 不獨子其子, 老有所終, 壯有所用, 矜寡孤疾, 皆有所養, 是以姦謀閉而不興, 盜竊亂賊不作, 故外戶而不閉, 謂之大同.²⁶⁾

나. 정(正)

‘공(公)’ 자에 이어서 ‘정(正)’ 자는 ‘하나(一)밖에 없는 길에서 잠시 멈추어서(止) 살핀다’는 뜻을 합(合)한 것으로, ‘바르다’나 ‘정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갑골문의 정(正) 𠄎를 보면 그칠지(止) 자 앞에 네모난 모양(口)이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성(城)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정’ 자는 ‘성을 향해서 정복하러 걸어가고 있는 모습’

24) 『呂氏春秋』「貴公」.

25) 『論語』「堯曰」.

26) 『禮記』「禮運」.

을 그린 것이다. 이 점에서는 '정벌하다', '바로 잡으려 가다'의 '정(征)'자와도 통한다. 전쟁과 정벌에는 올바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자는 '바르다'나 '정당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고, '공정(公正)'처럼 '공'자와, '정의(正義)'처럼 올바른 '의(義)'자와도 결합하게 된다.

이후 공은 사와 대립하며, '함께함'-'올바름'-'평형'의 의미와 붙어 '공공(公共), 공정(公正), 공평(公平)' 같은 말이 생겨났다. 중국 청대에서도 공정에 대한 정의(定義) 관련 논의가 여전히 전개된다. 청(淸)의 하계(何啓, 1859-1914)는 공정과 유사한 '공평(公平)'에 대해서 “‘공’은 ‘사사로움이 없는 것’이고, ‘평’이 ‘치우침이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나라의 기초임을 강조했다.²⁷⁾

다. 공(公), 믿음[信]의 준거

‘공’은 공공의 믿음, 즉 ‘신(信)’의 기초가 된다. ‘신’은 친구 사이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 인간관계 전반에 바탕이 되는 것, 인간관계 성립의 기초이다. 공자는 ‘신’을 수레의 끌채에 비유하면서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소가 끄는 큰 수레의 ‘예(輓: 끌채), 말이 끄는 작은 수레의 ‘월(輓: 끌채)은 모두 이것과 저것 사이를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장치이다. 이 장치가 없다면 수레는 나아갈 수가 없다.²⁸⁾ 공자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단체, 단체와 단체도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믿음, 즉 ‘신’이 없다면 어떠한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따라서 ‘신’은 국가, 그리고 국제적인 활동 어디에서나 소통될, 안정된 수평적 관계의 바탕이 된다. 거짓 없는, 성실-진실-충실한 마음가짐은 모든 관계 속의 최종적인 것이다.

사람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일단 말로써 맺어진다. 나 이외의 타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속임 없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군자가 집에 있으면서 그 말이 선하면 천리 밖에서도 응한다”,²⁹⁾ “신(信)이란 의(義)를 따름으로써 진정한 신일 수 있다”.³⁰⁾

27) 陳弱水, 『公義觀念與中國文化』(聯經, 2020), 42면 참조.

28)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 大車無輓, 小車無輓, 其何以行之哉?”(『논어』「爲政」).

29) 『周易』「繫辭傳 上」: “군자가 그 집에居하여 그 나오는 말이 착하면 천리 밖에서도 이에應하나니 하물며 그 가까운데 있는 자이라. 그 집에居하여 그 나오는 말이 善하지 않으면 千里 밖에서도 어기나니 하물며 그 가까운데 있는 者이라. 말이란 것은 자신으로부터 나와 백성에게 더하여지고 行하는 것은 가까운 데서 發하여 먼 곳에 나타난다.” 하셨다. 말과 행실은 君子의 樞機다. 樞機가 發하는 것은 영화롭고 욕됨이 주체이다. 말과 행실은 군자가 소위 天地를 움직이는

이른바 신의, 신용의 성립은 결국 안정된 인간의 삶의 보장으로 연결된다. 이처럼 ‘공’은 신뢰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덕과 윤리에 해당한다. 불편부당을 넘어 공, 공정성의 확보가 공공적 신뢰[信]의 기초가 된다.

3. 공(公)의 확대로서 공정(公正)

『순자(荀子)』의 「정명(正名)」에서는 공정을 ‘공심(公心)’, 즉 ‘공평한 마음’으로 보고, 같은 책 「부(賦)」에서는 사심이 없는 ‘무사(無私)한 마음’을 공심과 같은 것으로 본다. 아울러 『순자』의 「정론(正論)」에서는 임금, 즉 최고통치자가 공정하면 백성들은 편안하고 정직하게(易直) 될 것이라고 함으로써 치자(治者)의 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이직(易直)’이란 『예기(禮記)』 「악기(樂記)」에, “악(樂)을 온전히 다하여서 마음을 다스리면, 평안하고 정직하며, 자애로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난다(致樂以治心, 則易直子諒之心油然而生矣)”라고 하듯이, ‘편안하고 정직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도 예악은 정치인의 책무라는 점에서 공정은 지도자층(상위층)의 책무로서 언급된다. 상부의 ‘공정’이 있어야 하부의 ‘이직’이 있게 되는 것이다.

‘곧게 되다’는 것은 ‘정직하게 되다, 비뚤어진 것이 바로 잡히다’라는 뜻이다. 『한비자(韓非子)』 「해로(解老)」에서는 ‘반듯함(方)-깨끗함(廉)’과 함께, ‘곧음(直)’이 언급된다. ‘반듯함(方)’, ‘깨끗함(廉)’, ‘곧음(直)’은 서로 통한다. 그래서 『안자(晏子)』 「잡하(雜下)」에서는 “청렴하게 하는 것을 공정(公正)이라 한다(廉之謂公正)”고 규정한다.

이처럼 중국의 고전에서는 ‘공정’에 대한 언급이 주로 최고 통치자들의 마음가짐과 정치적 행위에 연관돼 있다. 송대에 이르면 ‘공정’이란 말이 더 적극적,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사람 마음이 화평하면 별말이 없다(人平不語)”는 말처럼,³¹⁾ 치우침 없이 공평한 마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올 만큼의 사회적 요구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먼저 『논어(論語)』 「이인(里仁)」에 나오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어진 사람 이라야 (바르게) 사람을 좋아할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느니라(子曰, 唯仁者,

것이니 가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子曰, “君子居其室, 出其言善, 則千里之外應之, 況其邇者乎? 居其室, 出其言不善, 則千里之外違之, 況其邇者乎? 言出乎身, 加乎民, 行發乎邇, 見乎遠, 言行, 君子之樞機. 樞機之發, 榮辱之主也, 言行, 君子之所以動天地也, 可不慎乎?”).

30)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儒學原論』(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8), 139면.

31) 普濟, 『五燈會元』(卷18), 「長靈守卓禪師」, “人平不語, 水平不流”.

能好人, 能惡人).”라는 구절을 두고 주희(朱熹)는 『논어집주』의 주(註)에서 “대개 사심이 없는 연후에야 좋아하고 싫어함이 마땅히 이치에 이를 것이니, 정자(程子)의 이른바 그 공정을 얻었다는 것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³²⁾

주희와 그의 여러 제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공정에 관한 논의를 보면, 공정은 ‘사심이 없고, 마음이 넓고 크고 공평함’을 뜻한다.

① “사심이 없음”[無私心]³³⁾

② “넓고 커서 사심이 없음”[廣大無私] ; “편벽되게 주장하는 곳이 없음”[無所偏主處]³⁴⁾

③ “거리낌 없이 탁 트여 크게 공평함”[廓然大公]³⁵⁾

아울러 ‘공정’에 대해 『주자어류』에서는 ‘공’은 (사사로움이 없이) ‘마음의 공평함’, ‘정’은 (올바른·합당한) ‘이치를 얻음’으로 나누어 정의한다.³⁶⁾ 이 둘을 합한 ‘공정’이란 ‘사사로움이 없이 마음이 공평하고, 올바르게 합당한 이치를 얻은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규정은 이후 동북아시아 유교권의 지성사에서 보편적으로 쓰이게 된다.

위에서 논의한 ‘공’의 확대로서 ‘공정’의 가장 모범은 ‘중용(中庸)’이라 할 수 있다. 중용은 공의 핵심인 ‘불편부당함이 없음’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의 ‘공정성’ 전통에서 보면 가장 이상적, 최종적인 위치를 점하는 개념이다. 『중용장구대전(中庸章句大全)』의 첫머리에서는 ‘중용(中庸)’에 대해서 “중(中)은 치우치지 않고 기울어지지 않으며 지나침(過)과 미치지 못함(不及)이 없음의 이름이고, 용(庸)은 평상(平常)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부분의 주(注)에는 ‘중’을 “치우치지 않음(不

32) 惟之爲言, 獨也. 蓋無私心然後, 好惡當於理, 程子所謂得其公正, 是也.

33) 『朱子語類』(卷26) 「논어」 〈유인자능호인능오인장(惟仁者能好人能惡人章)〉 蕭景昭說此章. 先生云, 注中引程子所謂得其公正, 是如何. 答云, 只是好惡當理, 便是公正. 先生曰, 程子只著箇公正二字解, 某恐人不理解得, 故以無私心解公字, 好惡當於理解正字. 有人好惡當於理, 而未必無私心. 有人無私心, 而好惡又未必皆當於理. 惟仁者既無私心, 而好惡又皆當於理也.(時舉)

34) 『朱子語類』(卷26) 「논어」 〈유인자능호인능오인장(惟仁者能好人能惡人章)〉 居父問. 仁者動靜皆合正理, 必有定則, 凡可好可惡者, 皆湊在這則子上, 所以能好人, 能惡人. 曰, 然, 程子所以說得其公正, 是也. 惟公然後能正, 公是箇廣大無私意, 正是箇無所偏主處.(賀孫)

35) 『朱子語類』(卷26) 「논어」 〈유인자능호인능오인장(惟仁者能好人能惡人章)〉 問, 惟仁者能好人, 能惡人, 好善而惡惡, 天下之同情. 若稍有些子私心, 則好惡之情發出來便失其正. 惟仁者心中渾是正理, 見人之善者則好之, 見不善者則惡之. 或好或惡, 皆因人之有善惡, 而吾心廓然大公, 絕無私係, 故見得善惡十分分明, 而好惡無不當理, 故謂之能好能惡. 曰, 程子之言約而盡. 公者, 心之平也. 正者, 理之得也. 一言之中, 體用備矣.(南升)

36) 『朱子語類』(卷26) 「논어」 〈유인자능호인능오인장(惟仁者能好人能惡人章)〉 위의 주 참조.

偏)/“천하의 바른 도(正道)”라 하고, ‘용’을 “바뀌지 않음(不易)/“천하의 정한 이치(定理)”라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중용이라는 개념에는 ‘공정, 공공, 공평무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4. 소결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公)’은 ‘사(私)’에 대칭-대항하는 형식의 기본 골격을 지니면서 논의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기본 틀은 군자와 소인의 개념 대비에서 알 수 있듯이, ‘의(義: 의리)’, 즉 공적이며 보이지 않는 가치와 ‘이(利: 이익)’, 즉 사적이며 보이는 가치의 대비를 기반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공(公)’은 ‘사(私)’를 초극해가는 방식을 취하며, 여기서 ‘공평, 공정, 공공’ 등의 개념으로 확대되어 전개되었다. 물론 이들 개념이나 논의들이 사상가나 연구자 사이에 동일하게 사용되고 합의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구연상이 “공공(公共)의 낱말 뜻 분석”에서 “현재 공공(公共)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는 많은 연구자들은 ‘공공(公共)’이라는 낱말을 그것에 대한 올바른 뜻매김 없이 저마다의 필요에 따라 ‘임시변통(臨時變通, ad hoc)’으로 쓰고 있다.”³⁷⁾ 하듯이, 맥락에 따라 의미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셋째, ‘공(公)’ 그리고 ‘공정’ 논의의 근저에는 ‘권력 상층부=통치자’의 내면적 양심과 윤리 도덕적 각성이라는 공동체적 희망과 요청이 깔려있다. 따라서 ‘공(公)’과 ‘사(私)’의 대항은 개인적 차원보다도 공동체적, 공공적, 정치적 맥락에서 부각된다.

넷째, ‘공(公)’은 기본적으로 ①‘최고의 수장(군주, 왕, 왕실 등) 혹은 공동체’를 상징하고, 그것이 ②‘조정-국가-관부-작위’로, 나아가 ③‘공동’의 의미로, 다시 ‘균평-공정-공평’의 의미로 확대되는 형태로 진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큰 도가 행해지면(大道之行) 천하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天下爲公)’는 이른바 ‘대동(大同) 사회’는 공평무사의 공정사회이며, 이것은 유교적 이상이자 동북아 사회에서 공정성이 실현된 이상 사회라 할 것이다. 이 사회는 ‘천하의 바른 도(正道)’인 ‘중(中)’과 ‘천하의 정한 이치(定理)’인 ‘용(庸)’이 실현된 ‘불편부당, 공평무사’의 공정

37) 구연상, “공공(公共)의 낱말 뜻 분석”, 『헤겔연구』 (46) (2019), 209면.

윤리 사회인 것이다.

여섯째, 동북아시아 사회에서는 ‘불편부당, 공평무사’를 넘어 공정 윤리 사회가 실현 되는 것을 국가사회의 공공적 신뢰(信)가 확보된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 않은 사회는 사회적 모순과 불협화음을 드러내 결국 공동체의 기반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제2절 | 공정성의 독자적 의미

공정이 우리 시대의 중심적인 사회윤리 원칙으로 부각되었지만 공정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은 “현상적으로는 공정이 적용되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서로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지만, 그 근저에 공정 개념의 불투명성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된다.³⁸⁾ 아래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성 개념은 매우 다양하다.

》》 [표 2-2-1] 공정성 개념의 다양한 유형 분류

분류	유형	개념 및 내용
사회구성 요소에 따른 분류	국가 공정성	질서 있는 사회 구축, 합리적 사회로의 발전 - 법치주의, 시민참여, 투명성, 다수결, 합리성, 분배정의
	경제적(시장) 공정성	과정의 공정성 - 공정경쟁, 정보공개, 노동자·소비자 권리 중시, 윤리경영
	사회적 공정성	명확한 정의 부재 - 투입의 평등, 결과의 평등 - 인간의 잠재력 계발, 자아실현, 영성 발현
조직 공정성	분배 공정성	수행된 업무에 상응하는 결과의 공정성
	절차 공정성	조직구성원들에 대한 대우와 혜택 등과 관련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절차 및 과정의 공정성
	상호작용 공정성	개개인들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에 초점
공정성 구성요소에 따른 분류	기회의 공정성	개인들이 계약관계를 맺는 절차적 과정으로서 공정성 - 형평성 측면 강조
	분배의 공정성	공공선에 부합하는 자원의 배분 - 결과의 배분 단계에 초점
	조건의 공정성	집합적 선택의 상황에서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 모색 - 게임 규칙

출처: 황해신·최성락, 2011: 36.

38) 정원규, 앞의 논문, 2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이라는 개념을 정의, 평등, 공평 등과 서로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며, 자기의 주관적인 윤리적 견해를 투영하기까지 한다.³⁹⁾ 이 절에서는 공정과 혼용되는 정의, 평등, 공평, 형평을 공정과 비교하고자 한다. 공정의 독자적인 의미를 추적한 연구가 많지 않기에 그 중 대표적인 연구인 정원규(2022)의 연구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공정과 평등

평등(equality)은 공정과 매우 빈번하게 함께 언급되거나 혼용되는 개념이다. 평등은 주로 기회의 평등,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첫째, 기회의 평등은 모든 개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시험처럼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회의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⁴⁰⁾ 둘째, 조건의 평등은 모든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사회적 조건에서 비롯된 차이를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가 조건의 평등을 실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⁴¹⁾ 셋째, 결과의 평등은 기회와 조건이 평등함에도 불구하고 운과 같은 우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 “냉혹하고 억압적”이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연적 결과를 축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누진세 제도가 결과적 평등을 목표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⁴²⁾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포함하지만, 결과의 평등과는 적용 영역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평등 지향적인 복지 제도는 “결과의 평등이나 정의의 문제로는 빈번하게 논란이 되지만 그것들이 공정의 차원에서 언급되는 경우는 드물다”.⁴³⁾ 반면에 적용되는 영역에 따라서 공정과 조건의 평등의 관계는 유동적이다. 사기업 직원 채용 심사에서 지원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고, 대학교 입학시험에서 지원자의 불우한 가정환경을 고려하는 것은 조건의 평등을 일정

39) 정원규, 앞의 논문, 1면.

40) 선우현, 『평등』(책세상, 2012), 35-36면 참조.

41) 선우현, 위의 책, 38면.

42) 정원규, 앞의 논문, 8면.

43) 정원규, 같은 곳.

부분 수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기에 “적어도 일상적 용례에서 조건의 평등은 공정의 내용 요소로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기도 하는 것이다”.⁴⁴⁾

2. 공정과 공평

공평(impartiality)은 공정과 마찬가지로 평등, 정의 등과 혼용되는 용어이다. 예를 들어, 공평은 투자와 보상이라는 교환의 틀 속에서 이해되기도 한다.⁴⁵⁾ 공동체는 공평한 행동에 대한 보상과 불공평한 행동에 대한 처벌을 통해 공평한 보상체제를 유지하려고 한다.⁴⁶⁾

여기에서 공평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공평의 핵심적 요소는 비편향성(impartiality)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이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公)’을 ‘사(私)’와 대립항으로, 공평을 사심을 극복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동아시아적 전통과도 일맥상통한다. 비편향성이란, 사적 선호(personal preferences)를 배제하고 규칙이나 원칙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⁴⁸⁾ 예를 들어, 대학 면접시험에서 면접관이 응시자가 친척이라는 이유로 가점을 주는 것은 불공평의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⁴⁹⁾

비편향성을 핵심 속성으로 하는 공평은 공정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적 선호가 개입된 판단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사적 선호를 배제했다고 해서 그 판단이 언제나 공정하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야구 심판이 매회 경기 규칙의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이 해석을 양 팀 모두에 적용한다면 비편향적인(즉, 공평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어도 공정한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⁵⁰⁾

정원규(2022)는 이 야구 심판 사례를 토대로 공정과 공평이 구분되는 기준으로

44) 정원규, 앞의 논문, 9면.

45) 황혜신·최성락,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한국행정연구원, 2011), 16면.

46) 전성표,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2006), 95면.

47) Troy Jollimore, “Impartiality”(First published Mon Mar 25, 2002; substantive revision Tue Aug 24, 2021),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21).

48) Craig L. Carr, 『On Fairness』(Routledge, 2005), p.17 참조.

49) 정원규, 앞의 논문, 10면.

50) Craig L. Carr, op. cit., p.19-20 참조.

‘합목적성(goal-rationality)’을 제시한다.

심판이 매회 판정 기준을 달리한다면, 투수나 타자 모두 상대보다는 심판의 판정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이는 불공평한 것은 아니지만 야구 경기의 진행을 왜곡하는, 즉 야구 경기 본연의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는 무조건적 공평이 아니라 사안의 취지를 고려한 공평이 추구되어야 하며, 이는 전술한 입사, 입학시험이나 유사한 많은 다른 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일반적인 사실이다.

공정에 합목적성 개념을 도입하면 조건의 평등과 공정의 관계를 보다 분명하게 해주는 이점도 있다.⁵¹⁾ 업무 역량을 갖춘 사원을 뽑는 입사시험과 달리 대학입시에서 성적 외에 가정환경과 같은 다른 요인을 고려하는 것은 학업 성취 가능성이 높은 학생을 뽑으려는 대학입시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공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또한 복지 정책에서 능력을 고려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될 수 있다.

3.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justice)의 혼용이주로 일어나는데, 특히 일상어에서 두 용어는 술어로 일상적으로 사용될 때 거의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성별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지 못하다.”와 “성별에 따른 차별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본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⁵²⁾

한편 학술적 맥락에서는 어떤 정의론을 취하느냐에 따라 공정과 정의의 관계는 다양한 양상을 띤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Plato)과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정의론은 현대의 다양한 정의론의 토대가 된다. 플라톤은 “자신의 임무에 전념하며 참견하지 않는 것이 정의”라고 했다.⁵³⁾ 다시 말해, 플라톤은 바람직한 국가 구성의 차원에서 정의를 ‘각자가 자기 자신의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⁵⁴⁾ 아리스토텔레스는 넓은 의미의 정의를 법(nomos)에 따르는 것으로 보았고, 좁은 의미의 정의를 균등(ison)으

51) 정원규, 앞의 논문, 11면.

52) 정원규, 앞의 논문, 12면.

53) 유종해·김택, 『행정의 윤리』(박영사, 2010), 63면.

54) 황혜신·최성락, 앞의 책, 18면.

로 보았다.⁵⁵⁾ 정의를 준법으로 보는 관점은 플라톤의 정의관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협의의 정의는 이익과 손해의 분배와 귀속에 있어서 치우친 취급을 하지 않는 균등의 원리가 된다.⁵⁶⁾ 균등의 원리로서의 정의는 비례적인 배분을 목표하는 '배분적 정의'와 이해득실의 과부족 조정을 목표로 하는 '교정적 정의'로 나뉜다.

현대의 대표적 정의론자인 존 롤즈(John Rawls)는 공정을 통해서 정의를 규정함으로써(justice as fairness) 공정과 정의가 상호 혼용되는 데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롤즈의 정의론을 절차적 정의론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의 정의론이 분배 절차에 국한되어서가 아니라 그의 정의론 자체의 성격이 절차적이기 때문이다.⁵⁷⁾ 만약 롤즈의 정의론을 근거로 공정을 절차에 대한 정의와 동일시한다면 이것은 롤즈의 정의론에 대한 오해라고 할 수 있다.⁵⁸⁾ 그런데 롤즈는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라는 어구로 표현되듯 "공정을 통해 정의를 정당화하는 시도를 함"과 동시에,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라는 어구로 표현되듯 "결과적으로 공정을 정의 원칙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키거나 정의 원칙 수립의 결과로 묘사하고" 있다.⁵⁹⁾ 이런 논의 구조에서 공정은 이미 정의 개념에 종속되기 때문에 공정의 독자적인 의미를 찾아내기 어렵다.

정원규(2022)는 공정의 독자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 적용 영역을 기준으로 공정과 정의를 구분하는 제안을 한다. 이는 앞서 살펴본 공정과 결과의 평등을 구분하는 방법과 같다. 정의는 "기회, 과정, 결과 등의 영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공정은 "주로 기회나 과정에 적용되지, 결과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생각되는 경우는 드물다".⁶⁰⁾ 예를 들어,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는⁶¹⁾ 용례가 이와 같은 적용 영역의 구분을 통해 한정된 공정의 독자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정된 공정의 의미는 합목적인 공평성을 넘어서지 않지만, 결과에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55) 유종해·김택, 위의 책, 63면.

56) 황혜신·최성락, 위의 책, 18면.

57) John Rawls, 『A Theory of Justice』(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14 참조.

58) 정원규, 위의 논문, 13면.

59) 정원규, 앞의 논문, 13면(John Rawls, 앞의 책, 전자는 §3, 후자는 §14, 18 참조).

60) 정원규, 위의 논문, 14면.

61)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2017. 5. 10.).

4. 소결

정원규(2022)는 공정과 유사 개념의 비교를 바탕으로 공정을 '기회의 평등을 전제한 합목적적 공평성'이라는 잠정적 정의를 제안하였다.⁶²⁾ 이 정의에 따르면,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포함하지만 결과의 평등과는 구분되고, 비편향성이라는 면에서는 공평과 중첩되지만 합목적성이라는 면에서는 공평과 구분된다. 한편 정의는 결과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정과 구분되지만, 합목적적 공평성이 정의의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62) 정원규, 앞의 논문, 2면.

제 3 장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공정성 인식 연구 방법

강 태 경

제3장

공정성 인식 연구 방법

제1절 | 공정성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1.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공정성 인식에 관한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의 조사로는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들 수 있다. 이 조사는 2013년부터 국가승인통계(일반·조사통계, 승인번호: 417001)로 매해 실시되고 있으며, 2014년부터 ‘공정성’ 부문이 추가되었다. 공정성 부문 조사항목은 ① 사회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② 기관별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인식, ③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④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다. 아래에서는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중 공정성 부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자.⁶³⁾

첫째, 행정기관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2.9점으로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에 대한 평가보다 높았다.⁶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

63) 조사개요

- 모 집 단: 2022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 집 틀: 통계청 2020년 등록센서스(약 2,093만 가구, 기준 약 4,210만 명)
 - 표집방법: 시/도별, 시/도 권역 내 지역별 층화표집
 - 표본크기: 8,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1.12\%$
 - 조사방법: 조사원이 가구를 직접 방문 조사하는 「면접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실시
단, 응답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기기입식조사」 방법 병행
 - 조사일시: 2022년 9월 1일 ~ 10월 31일
 - 조사기관: 한국행정연구원(주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실시)
-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23: 5-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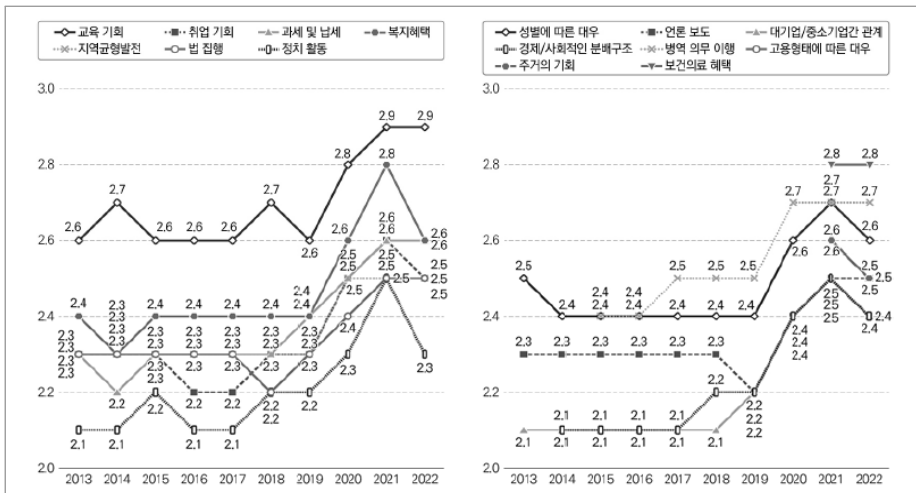
64)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한국행정연구원, 2023), 67면.

평균 점수는 2.6점, 법원·검찰·경찰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각각 2.5점, 국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2.3점을 기록하였다.

둘째, 사회 전반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4점 만점에 평균 2.4점으로 나타났다.⁶⁵⁾ 각 분야별 공정성 인식을 살펴보면, 교육 기회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건의료 혜택이 2.8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에 정치 활동에 대한 공정성 인식 평균 점수는 2.3점으로 가장 낮았다.

▶▶▶ [그림 3-1-1] 사회 공정성 인식 연도별 추이

(단위: 점, 척도: 1~4점)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23: 68.

셋째,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대안으로는 행정절차 투명성 강화(4.2/5점)가 가장 중요도가 높은 방안으로 나타났으며, 공직청렴도 강화(4.1/5점), 취업기회 보장(4.1/5점), 국민 참여 확대(4.0/5점)에 대한 중요도 인식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⁶⁶⁾

넷째, 차별 경험에 있어서 나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취급당했거나 불이익을 받았던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5.5%로 다른 사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⁶⁷⁾ 그다음으로 경제적 지위 11.4%, 학력이나 학벌 10.0%, 고용형태 9.0%, 성별 8.1% 등의 순으

65) 한국행정연구원, 앞의 책, 68면.

66) 한국행정연구원, 위의 책, 69면.

67) 한국행정연구원, 위의 책, 72면.

로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갈등의 심각성에 있어서 보수와 진보 간 이념갈등(3.2/4점)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⁶⁸⁾ 그다음으로 빈곤층과 중/상층 간 계층갈등은 3.0/4점, 근로자와 고용주 간 노사갈등은 2.9/4점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인식되었다.

여섯째, 사회갈등의 주원인으로는 빈부격차(24.5%)와 개인·집단 간 상호이해 부족(24.1%), 이해 당사자들의 각자 이익 추구(20.5%)가 지목되었다.⁶⁹⁾ 반면에 권력 집중(12.2%)이나 기회의 불평등(4.4%)을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2. 한국리서치,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2018)』

공정성 인식에 관해 최근 수행된 대표적인 조사로는 한국리서치가 2018년에 실시한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이하, ‘공정성 인식조사(2018)’이라 한다)를 들 수 있다. 이 조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으로 공정을 판단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⁷⁰⁾ 이 조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노력’에 비례한 ‘차등’ 분배 선호

응답자 과반수가 분배에 있어서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공정하

68) 한국행정연구원, 위의 책, 74면.

69) 한국행정연구원, 위의 책, 75면.

70) 조사개요

- 모 집 단: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표 집 틀: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017년 12월 기준 약 40만 명)
 - 표집방법: 지역별, 성별,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 비례할당추출
 - 표본크기: 1,000명
 - 표본오차: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p
 - 조사방법: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 가 중 차: 2017. 9. 행안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림가중)
 - 응 답 료: 메일 발송 7,673명, 메일오픈 1,713명, 조사완료 1,000명
(발송대비 13.0%, 오픈대비 58.4%, 참여대비 71.2%)
 - 조사일시: 2018년 2월 23일 ~ 2월 28일
 - 조사기관: (주)한국리서치
- (출처: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요약”
(<https://hrcopinon.co.kr/archives/11697>, 최종접속일 2023. 11. 00.)).

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¹⁾ 응답자의 66%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보수 차이가 클수록 좋다는 입장이었다(매우 그렇다 17% + 대체로 그렇다 49%). 차등 분배를 선호하는 경향은 연령별, 소득별, 학력별, 정치성향별 큰 편차가 없었다.

한편 차등적 분배의 전제가 되는 경쟁에 대해서는, 경쟁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경쟁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양면적 태도가 나타났다.⁷²⁾ “우리 사회에서 경쟁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79%가 동의하였고, 동시에 “한국에서 경쟁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62%에 달했다. “경쟁은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답자 45%가 동의했지만, 20대의 경우 응답자의 58%가 동의하였다.

차등적 분배의 기준에 관해서 응답자들은 능력이나 성과보다 근무태도와 같은 노력 요인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³⁾ 능력이나 노력에 따른 보수 차이가 커야 한다는 응답자들에게 임금의 차이를 두어야 할 요인을 물은 결과 43%가 ‘근무태도’를 꼽았다. 그다음은 ‘능력’(23%), ‘업무성과’(22%), ‘근속연수’(16%)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학력’과 ‘가정형편’은 임금격차를 둘 요인이 아니라는 응답이 각각 69%로 높았다. ‘부양가족 수’도 임금격차를 둘 요인이 아니라는 응답이 58%에 달했다.

임금격차의 기준으로 노력과 같은 근면성이 중시되었는데, 조사팀은 이러한 결과가 “한국인들이 능력(competence)이나 성과(outcome)에 따른 ‘업적주의(meritocracy)’보다 노력과 과정에 대한 보상을 공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하였다. 한편 가정형편이나 부양가족 수와 같은 요인은 임금격차를 둘 요인이 아니라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조사팀은 이러한 결과가 “필요에 의한 보상을 정의로 보는 시각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나. 한국사회의 ‘불공정’ 실태에 관한 인식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사회의 불공정 실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71)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2018년 2월)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한국리서치, 2018), 10면.

72)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위의 글, 11면.

73)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위의 글, 12면.

경쟁의 기회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불신이 확인된다. 물이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으며, 입시나 취업의 기회가 소위 “가진 자”에 집중되고, 그 결과 소득 및 자산 분배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이 개인의 노력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배경이나 연줄에 의해 좌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⁷⁴⁾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가장 큰 영역은 ‘법 집행’이었다.⁷⁵⁾ 응답자의 74%(매우 39% + 약간 35%)가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소득/재산 분배’에 대해서 응답자의 71%(매우 32% + 약간 39%), ‘취업기회’에 대해서 응답자의 71%(매우 27% + 약간 44%), ‘승진/진급’에 대해서 응답자의 67%(매우 22% + 약간 45%)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한편, ‘입시제도’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48%(매우 12% + 약간 3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⁷⁶⁾ 그러나 자녀를 둔 기혼자 응답자(694명)의 경우 자녀의 취학단계에 따라 약간의 편차가 있었지만 이들 중 과반수가 입시제도 불공정하다고 응답하였다.

정당한 차등 분배의 전제가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인식은 열패감으로 이어지고, 이 열패감 이면에는 성공이 자신의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이나 연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이 작용한다.⁷⁷⁾ 응답자의 15%만이 본인이 자기 세대의 평균적 수준과 비교할 때 성공했다고 답했고, 34%에 달하는 응답자들은 본인이 실패했다고 답했다. 이러한 열패감은 저학력층, 1인 가구,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조사팀은 “불공정 인식과 강한 열패감 이면에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작용하고 있다.”⁷⁸⁾ 분석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노력이나 재능 같은 요인이 아니라 부모 배경이나 연줄 같은 노력과 실력 외적인 요소의 결과라는 불신이다. 한국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데 다음 사항들이 각각 얼마나 중요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매우 중요했다고 응답한 비율 기준으로 보면 부모 배경이 68%, 연줄 60%로 압도적이었다. 역량 개발을 위한 투자(이 역시 가정 배경이 일정하게 반영) 39%, 개인의 노력이

74) 한국리서치, 앞의 글, 4면.

75)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위의 글, 18-19면.

76)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위의 글, 18-19면.

77) 이하 내용은 한국리서치, 위의 글, 20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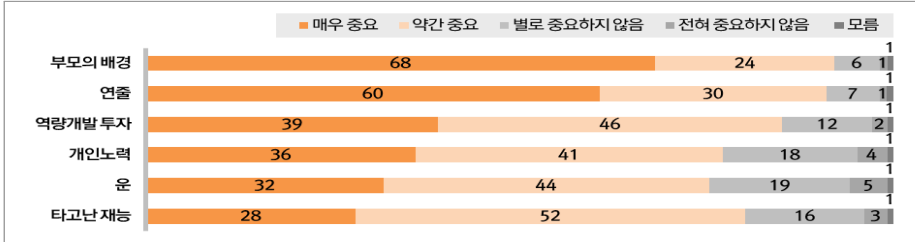
78) 한국리서치, 위의 글, 4면.

34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매우 중요했다는 응답은 36%였고 운 32%, 타고난 재능 28% 순이었다(그림 3-1-2).⁷⁹⁾

» [그림 3-1-2]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조건

(각N=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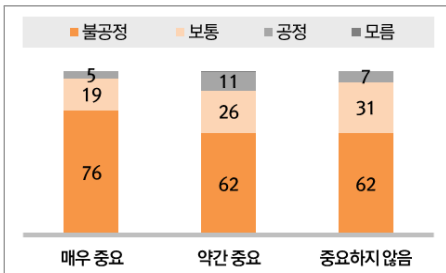


출처: 한국리서치, 2018: 21, 그림 14.

성공조건을 부모의 배경 같은 선천적인 요인으로 보는가, 자신의 노력과 같은 후천적인 자력 요인으로 보는가는 한국사회의 공정성을 보는 평가의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림 3-1-3]에서 부모 배경이 성공조건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답한 층에서는 취업 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76%인데 반데 약간 중요하다고 답하거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62%로 그 강도가 크게 떨어진다. 반대로 [그림 3-1-4]를 보면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에 개인의 노력이 매우 중요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취업기회가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68%이나, 중요하지 않다고 답한 층에서는 75%로 나타났다.⁸⁰⁾

» [그림 3-1-3] 부모 배경*취업기회 공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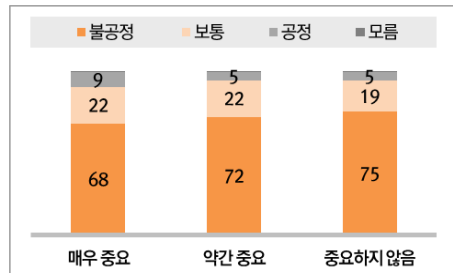
(N=1,000,%)



출처: 한국행정연구원, 2018: 21, 그림 15·16.

» [그림 3-1-4] 개인 노력*취업기회 공정성

(N=1,000,%)



79) 한국리서치, 위의 글, 21면.

80) 한국리서치, 앞의 글, 21면.

제2절 | 공정성 인식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 하향식 접근법

앞서 살펴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2)’와 한국리서치의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2018)’는 리커트 척도 문항 및 선택형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향식(top-down) 접근법에 속하는 이러한 설문조사 방식은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사람들의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사회조사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향식 접근에는 한계점이 있다. 사회조사에 사용되는 설문 문항들은 연구자의 연구 관심으로부터 도출된 것이다. 하향식으로 설문을 구성하는 것은 연구자의 연구 관심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연구 주제에 관해서 조사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해를 자연스럽게 포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하향식 접근의 한계는 주관적 의식의 대상이 추상적인 개념일 경우 더 크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법을 준수하는 동기는 ‘경제적(비용분석)-사회적(집단압력)-도덕적(내면화)’ 층위를 가질 수 있고, 법의 다양한 영역이나 수범자의 특성에 따라 각기 다른 동기가 작동할 수 있다.⁸¹⁾ 실정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법전문가들은 법의 전형을 실정법으로 이해하는 실증주의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데 반해, 일반시민들은 법을 도덕이나 정의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자연법론적 관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⁸²⁾ 또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법제도를 활용하여 경제활동을 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법을 도구적으로 생각하는 데 반해, 경제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험이 적어 법을 단순히 통제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쉬울 수도 있다.⁸³⁾ 따라서 다양한 수범자들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선이해에 대한 경험적 탐색 없이 연구자가 암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탕으로 설문 문항을 구성한다면 다층적 법 준수 동기를 온전히 포착하기 어렵다.

81) D. Galligan, 『Law in Modern Society』(Oxford University Press, 2006).

82) 연성진·최병각·기광도,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8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 (1974), 33-81면.

앞서 살펴본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2022)’의 경우 사람들이 ‘공정’ 또는 ‘불공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경험적 검토 없이 조사 응답자에게 특정한 기관이나 상황이 공정한지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조사 방식으로 얻은 결과는 평가 대상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상을 알려줄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사법기관의 공정성과 행정기관의 공정성, 공적 영역에서의 공정성과 사적 영역에서의 공정성은 그 내용과 적용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리서치의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2018)’는 구체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분배 기준, 임금 격차, 성공 조건 등에 대한 시민들의 주관적 의식을 자연스럽게 포착했다. 그러나 이 조사 결과가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는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모종의 공정성 개념을 바탕으로 한 해석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조사를 분석한 연구자는 ‘공정’과 ‘정의’를 혼용하기도 한다.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차등 분배와 같은 결과의 영역에서 공정성이 독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과의 영역에는 ‘정의’라는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성 인식에 관한 체계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정성 개념의 다양한 구성요소에 대한 탐색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연구자가 공정성과 관련된 특정한 이론을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보다 전반적인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고 기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공정성 개념의 구성요소에 대한 경험적 탐색 없이 이론적 배경과 기존 조사문항을 토대로 설문 문항을 작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2. 상향식 접근법

생태학적 타당성(ecological validity)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공정성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념을 탐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는 상향식 접근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향식 접근법은 개념의 다층성과 다면성의 상당 부분을 포착하기 어렵다. 아래에서는 상향식 접근법이 적용된 국내 연구 사례를 살펴보자.

첫 번째 연구 사례로는 ‘법에 대한 연상어 분석’을⁸⁴⁾ 살펴보자. 1972년 2~5월에

실시된 임희섭(1974)의 법의식조사는 전국표본(성인 남녀 2,000명), 대학생표본(787명), 법률직 종사자표본(258명)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연구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인 '태도(attitude)'를 법의식조사에 접목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⁸⁵⁾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낱말이 무엇인가?”라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류하여 비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⁶⁾

- 법의 본질과 기능(38.0%): 질서유지(12.3%), 사회규범(7.4%), 도덕과 정의(6.7%)
- 법의 집행 과정(18.3%): 법집행기관(11.4%), 법적 제재(6.9%)
- 법에 대한 일반적 인상(17.3%): 긍정(12.9%, 공식성, 공정), 부정(4.5%, 불공정, 권력 등)
- 범죄·불법행위(9.9%)

설문응답자들은 ‘법’에 관해서 질서유지와 같은 법의 기능이나 사회규범, 도덕과 정의와 같은 법의 본질에 관한 단어를 연상하였다. 또한 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상에 관한 단어를 연상한 경우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1990년대부터 실시된 여러 법의식조사에서 일반 시민들은 법에 대해서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는 조사결과와는 상반된다.

두 번째 연구 사례로는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를 살펴보자.⁸⁷⁾ 김혜은(2007)은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화비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만 12세에서 16세 사이의 독일 청소년 124명, 한국 청소년 116명을 대상으로 권리와 의무의 정의, 결정주체,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방형문항(문장완성형)이 사용되었다.

84) 임희섭, 앞의 논문.

85) 그는 “법에 대한 태도는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 법에 의존하고 법을 사용하느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독립변수”이며(임희섭, 1974: 10), “법에 대한 태도는 법의 도덕성, 정치성, 타당성, 적절성 등에 관하여, 행위자가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으로 어떠한 반응 양식을 보이고 있느냐 등으로 구성”된다고 한다(임희섭, 1974: 40).

86) 임희섭, 위의 논문, 43-44면.

87) 김혜은,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8(2) (2007), 213-237면. 이 연구는 S. Hoppe-Graff & H.-O. Kim, “Understanding Rights and Duties in Different Cultures and Contexts: Observations From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The psychology of rights and duties: Empirical contributions and normative commentaries』 (2005), pp.49-73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

1) 권리와 의무의 정의

-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에 대해 설명하는 상황을 상상해보고 다음의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 “권리(의무)를 갖는다는 것은 …” (문장완성형)

2) 권리(의무)의 결정 주체

- “본인의 권리(의무)를 누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까?”

3) 가장 중요한 권리와 의무

- “모든 사람들은 다양한 권리(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성인뿐 아니라 아동,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권리(의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에 기입하십시오.”

4) 성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

- “청소년들이 성인과 동등한 권리 (의무)를 갖고 있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예 / 아니오)
- “옳다고 혹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 (문장완성형)

위와 같은 개방형 문항에 대한 응답을 범주화(권리와 의무 각각 5개 범주)하여 각 범주에 해당하는 비율을 계산하고(중복비율), 한국 청소년 집단과 독일 청소년 집단 간 교차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3-2-1] 권리와 의무의 정의

권리와 의무의 범주		한국 N(%)	독일 N(%)	χ^2
권리	자율성	46(40.7)	47(41.3)	0.006
	허가	8(7.1)	60(52.6)	56.12***
	권리와 책임의 상보성	30(26.5)	24(21.1)	0.94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27(23.9)	10(8.8)	9.51**
	올바른 삶	18(15.9)	1(0.9)	16.76***
의무	해야 될 일을 행함	26(23.6)	80(66.7)	42.77***
	책임	31(28.2)	32(26.7)	0.07
	개인 활동의 제한	4(3.6)	2(1.7)	0.88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9(8.2)	2(1.7)	5.35*
	올바른 삶	33(30.0)	1(0.8)	38.76***

*p<.05, **p<.01, ***p<.001

출처: 김해은, 2007: 221, 표2

한국과 독일 청소년들의 권리와 의무 개념의 이해를 구별하는 큰 특징은 독일의 청소년들이 권리와 의무를 외적 조건과 연결시켜 파악하고 있어서 권리를 허가, 합법적인 것으로, 의무를 외적 규제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한국의 청소년들은 올바른 삶과 같이 규범의 내면화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와 의무의 결정 주체에 대해서 독일 청소년들은 법적 제도적 측면을 강조한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내적 정향과 관계적 정향을 더 강하게 보였다. 청소년과 성인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않는 것에 동의한 이유를 독일 청소년들이 능력과 자원의 부족이라고 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 청소년들은 역할과 지위와 같은 인습적 요인을 고려하였다.⁸⁸⁾

권리와 의무에 관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⁸⁹⁾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40.7%가 권리를 자율성과 관련하여 정의하였고, 독일 청소년들도 비슷한 비율로 답변하였다(41.3%). 반면에 많은 독일 청소년들이(52.6%) 권리를 허가의 개념으로 이해하였고, 한국 청소년들은 독일 청소년들에 비해서 권리를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혹은 [올바른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⁹⁰⁾ 한편 독일 청소년들은 의무를 [해야 될 일을 행함]으로 이해하는 비율이 66.7%에 달했지만, 한국 청소년들의 경우 이러한 이해를 보인 응답은 23.6%에 그쳤다. 반면에 한국 청소년들은 [올바른 삶]의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의 빈도가 30.0%였지만, 독일 청소년들의 경우 의무를 [올바른 삶]과 연결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세 번째 연구 사례로는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연구를 들 수 있다.⁹¹⁾ 강태경(2022)은 법관 대상 초점 집단 면접(FGI) 내용을 분석하여 법관이 사회여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식을 탐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법관들이 재판과 관련하여 ‘사회여론’, ‘사회통념’, ‘국민법감정’, ‘국민정서’ 등을 어떻게 개념화하는지와 사회여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현직 법관 24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에 대한 근거이론적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구조적

88) 김혜은, 앞의 논문, 213면.

89) 김혜은, 앞의 논문, 221-222면.

90) “[존중과 인정을 받는 것] 범주에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는 것”, “자긍심을 느끼는 것”,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음”,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응답이 포함되고, [올바른 삶] 범주에는 “나이에 맞게 행동”하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며, “청소년답게 올바로 사는 것” 등의 응답내용이 분류되었다”(김혜은, 2007: 222).

91) 강태경,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13(1) (2022), 23-52면.

토픽 모델링(structural topic modeling, STM)을 수행하였다.

연구자는 Charmaz(2014)가 제시한 코딩 방법에 따라 인터뷰 녹취록 내용을 분석하였다.⁹²⁾ 인터뷰 녹취록 내용에 대한 줄 단위 분석을 통해 168개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그 개념들로부터 20개의 초점코딩 범주와 6개의 이론적 코딩 범주로 구성하였다.

» [표 3-2-2] 근거이론 방법에 따라 구성된 코딩 범주

초점코딩 범주	이론적 코딩 범주
여론의 특징	여론의 개념화
여론의 다양한 형태	
여론의 내용 등 파악의 어려움	
언론에 의한 잘못된 여론 형성	
여론의 정당성 문제	
사회통념에 대한 인식	여론과 유사 개념의 구분
사회상규에 대한 인식	
상식에 대한 인식	
법감정에 대한 인식	
국민정서에 대한 인식	
사법의 고유한 역할	법적 사건의 특수성
사건의 종류에 따라 여론 등의 영향력 달라짐	
법관의 가치관과 사회의 가치관 사이에서의 고민	
여론에 대한 관심 인정	법관의 독립과 여론의 관계
여론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노력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이 유보되어야 하는 영역	
판결 비판에 대한 태도	
양형 기준에 대한 인식	
양형과 여론 등의 관계에 대한 인식	양형에 대한 여론의 영향력

출처: 강태경, 2022: 51-52, 부록

92) K. Charmaz,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SAGE, 2014). 자료는 초기코딩, 초점코딩, 이론코딩 순으로 분석했다. 초기코딩은 자료를 정리하여 유목화하고 적절한 개념을 붙임으로써 자료에서 의미를 찾는 과정이다. 초점코딩은 초기코딩에서 만들어진 범주를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구조화하는 과정이다. 이론적 코딩은 초기코딩과 초점코딩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서술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각 코딩 단계에서 범주가 자료에서 관찰된 것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대 사례를 찾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범주는 계속 수정된다.

위 표를 살펴보면, 인터뷰 참여 법관들은 여론과 유사한 개념인 사회상규, 사회통념, 법감정, 국민정서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참여 법관들은 각 개념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상규는 법적인 의미에서 규범으로 인식되고, 사회통념은 법적인 의미에서 규범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사실로 인식된다. 반면에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정서는 법적 이슈에 대한 일반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나 반응으로 이해된다. 여기에서 법감정은 국민정서보다 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것이며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 법관들은 대체로 여론을 특정한 법적 쟁점이나 사건에 대한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반응으로 이해하고, 재판에 대한 여론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 개별 사안이 아닌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여론은 개별 사안에 대한 감정적 반응으로서의 여론과 구별되는 것으로 인식한다. 이 경우 여론은 '사회통념으로서의 여론'이나 '국민 법감정으로서의 여론'으로 이해된다.⁹³⁾

그리고 인터뷰 참여 법관들은 사건의 종류나 법적 쟁점에 따라 여론이나 사회통념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인터뷰 참여 법관들은 소수자 보호, 절차적 정의 준수, 기본권 보장과 같은 문제는 사회 통념이나 국민 법감정에 따라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

첫째, 민사 사건에서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여론이 해당 재판 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지만, 위자료 산정 문제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은 위자료 산정 단계에서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둘째,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특정 사건과 관련된 여론이 해당 사건의 사실 관계 확정 과정이나 법령의 해석 단계에 개입되어서는 안 되지만, 양형 부분에서는 '국민 법감정으로서의 여론'을 참고할 만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셋째, 행정 사건에서도 원칙적으로 여론에 따라 재판을 해서는 안 되지만, 당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정책적 문제에 관한 여론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여론의 형성 배경을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⁹⁴⁾

임희섭(1974)의 연상어 분석과 김혜온(2007)의 한국-독일 청소년의 권리/의무 의식

93) 강태경, 앞의 논문, 44-45면.

94) 강태경, 위의 논문, 45면.

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그리고 강태경(2022)의 인터뷰 연구는 상향식 접근법의 장점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김혜온(2007)의 연구는 개방형 문항을 활용하여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일상적 이해를 풍부하게 기술하고, 그 이해의 내용을 범주화함으로써 권리와 의무에 대한 표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잘 보여주었다. 또한 강태경(2022)의 연구도 인터뷰를 활용하여 여론과 유사 개념 간의 상이점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을 분석함으로써 여론 등에 대한 전문가의 표상을 체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3. 상향식 접근법으로서의 프로토타입 분석

공정성에 관한 인식을 탐색하는 데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상향식 접근법으로 프로토타입 분석(prototype analysis)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프로토타입 분석법은 사람들이 특정 개념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을 평가하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정의(定義)가 명확하지 않은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토타입 분석은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 이 접근법은 개념을 유개념과 종차로 구성된 필요충분조건으로 정의하는 고전적 관점과 달리 대표성을 가지는 원형적 사례를 중심으로 개념의 구조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예를 들어, ‘의자’를 생각해보자.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사람이 걸터앉는 데 쓰는 기구’이다. 그런데 의자를 구글 검색하면 그 이미지가 매우 다양하다. 다리가 세 개인 의자, 다리 대신 하나의 기둥으로 만들어진 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의자만 보더라도 ‘의자’와 같은 간단한 개념조차 정의하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프로토타입 분석은 절대적인 경계 조건으로 정의할 수 없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상 개념의 원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의 목록을 만드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프로토타입 분석법을 통해 특정 개념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을 탐색하는 대략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유연상(free associations)’ 기법에 따라 연구 참여자들은 특정 개념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단어들을 자유롭게 기술한다. 수집된 단어들을 개념적 유사도에 따라 분류하고, 분류된 단어들에 공통적인 상위 개념을 붙이는 코딩 작업을 수행한다. 언급된 빈도에 따라 자주 언급되는 특징은 중심 특징으로, 덜 언급되는

특징은 주변 특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를 다른 연구참여자 집단으로 하여금 그 핵심성과 중요도를 평가하게 하여 두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해당 개념에 관한 잠정적인 프로토타입 모델을 도출한다.

이와 같은 프로토타입 분석법은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감정이나 상호관계에 관한 구성체를 탐구하는 중요한 연구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욕망, 사랑, 감사, 향수와 같은 감정 관련 개념을 정의할 때, 이 방법은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왔다.⁹⁵⁾ 예를 들어, 희망(hope)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프로토타입 분석을 적용한 최근 연구에서는 네덜란드와 미국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희망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질문을 통해 도출된 희망의 특징 목록을 구축하였다.⁹⁶⁾ 이 연구에서는 희망의 핵심 요소를 찾기 희망의 특징 목록과 선행 연구문헌에서 보고된 희망의 정의를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믿음, 긍정, 미래, 욕망, 가능성이 희망의 핵심 요소로 제안되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희망을 ‘긍정적인 미래의 결과가 가능하다는 믿음(a belief that a positive future outcome is possible)’과 ‘그러한 결과에 대한 열망(a desire for that outcome)’의 결합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하였다.

프로토타입 분석은 하향식 접근법과 상호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되는 인터뷰와는 구별된다.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한 연구에서 연구에 필요한 주요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서 소수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실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인터뷰는 특정 개념에 대한 인터뷰이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듣는다는 점에서 상향식 접근법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인터뷰는 연구에 필요한 개념 정의를 즉각적으로 제공하기는 하지만, 경우에

95) 예를 들어, M. Elshout, R. M. Nelissen, & I. Van Beest, "A prototype analysis of vengeance", 『Personal Relationships』 22 (2015), pp.502-523; B. Fehr, "Prototyp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lov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988), pp.557-579; J. Fitness & G. J. Fletcher, "Love, hate, anger, and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A prototype and cognitive apprais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993), pp.942-958; E. G. Hepper, T. D. Ritchie, C. Sedikides & T. Wildschut, "Odyssey's end: Lay conceptions of nostalgia reflect its original Homeric meaning", 『Emotion』 12 (2012), pp.102-119; N. M. Lambert, S. M. Graham & F. D. Fincham, "A prototype analysis of gratitude: Varieties of gratitude experi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2009), pp.1193-1207; T. G. Seuntjens, M. Zeelenberg, S. M. Breugelmans & N. van de Ven, "Defining gree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6 (2015), pp.505-525.

96) S. X. Luo et al.,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hope: A prototype analysis", 『Emotion』 22(4) (2022), p.751.

따라서 그 개념 정의가 연구자의 관심 영역에 따라 지나치게 구체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료 연구자와 교육 연구자는 희망 개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⁹⁷⁾ 의료 분야에서 희망 개념은 종종 환자와의 인터뷰에서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는 희망 개념과는 다를 수 있다.⁹⁸⁾

반면에 이론이나 소수의 의견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향식 기법인 프로토타입 분석은 데이터에 기초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한다. 프로토타입 분석은 하향식 접근법의 단점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대상이 되는 특정한 개념과 관련된 광범위한 특징 목록을 만드는 데 유용하다. 이와 같은 특징 목록은 어떤 개념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 개념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보여주는 기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알려줄 수 있다.⁹⁹⁾

한편 프로토타입 접근법은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s)’ 이론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사회적 표상 이론은 2차 세계대전 후에 프랑스에서 창안된 사회심리학의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Serge Moscovici의 『La Psychanalyse: son image et son public』(1961)로부터 시작되었다.¹⁰⁰⁾ 1970·80년대 영미 사회심리학계에도 사회적 표상 이론이 소개되고 관련 연구가 진행되었다. Robert Farr와 Moscovici가 사회적 표상에 대한 이론적 해설과 20여 년간의 연구결과를 망라하여 소개한 『Social Representations』(1984)를 펴냈다.

Moscovici(1961)는 사회적 표상을 ‘그 자신의 논리와 언어를 가진 인지체계로서 단순히 의견, 심상, 태도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reality)의 발견과 구성을 위하여 그 자체의 이론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정의했다.

사회적 표상은 ... 일종의 인지체계로서, 그 인지체계는 객관적 현실이나 학술적 설명과는 독립적으로 그 자체로서의 논리체계와 언어적 표현체계를 갖는다 ... 사회적 표상은 어떤 대상체나 현상에 대한 의견이나 심상 또는 태도와 같이 그렇게 단순한 인지체계가 아니다. 이것은 비록 학문적 이론과는 그 성격이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서 이론의 형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따라서 학문적 지식과는 독립된 별도의 지식체계이다 ... 이러한

97) S. X. Luo et al., Ibid.

98) S. X. Luo et al., Ibid.

99) S. X. Luo et al., Ibid.

100) 최상진,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1990), 74면.

이론 또는 지식체계는 가치체계, 아이디어체계 그리고 행동체계 등을 포함하며, 다음과 같은 이중적 기능을 갖는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에 대한 관계양식과 대응방식을 제공해 준다. 둘째, 사회적 표상은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서 발생하는 사상에 대해 사람들이 공유-공용하는 전형적 의미(또는 상징) 기호 및 설명체계를 제공해주며, 동시에 세상사 및 과거의 역사적 사상에 대해서 전형적 해석양식을 부여해 줌으로써, 사회구성원간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든다.¹⁰¹⁾

여기에서 말하는 표상(representation)은 '이해와 전달의 특정 양식에 관계하고 있는 현상으로서 기술과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분석대상으로서의 현상'이라는 점에서 사회심리학에서의 사회표상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상의 지위를 가진다고 평가된다.¹⁰²⁾ Rom Harre(1984)는 Moscovici가 사용한 프랑스어 단어인 'REPRESENTATION'에는 특정한 현상을 설명하는 설명체계, 즉 '이론'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영어 번역어로 'representation'보다는 'version'을 제안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사회적 표상은 어떤 이론이나 개념의 일상적 변안(a lay version of a theory)이라고 할 수 있다.¹⁰³⁾

초기 사회표상 연구자들은 담화 분석과 같은 질적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였지만, 최근에 연구자들은 사회표상 연구에 factor analysis, cluster analysis, correspondence analysis 등과 같은 양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특정 주제에 대한 사회표상의 층층 구조를 밝히고 사회표상의 집단 간 차이를 규명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프로토타입 분석은 사회표상 연구에서 종종 적용된다.

101) Herzlich, 1973, xiii(최상진, 앞의 논문, 80면 재인용).

102) 민경환, "社會心理學의 方法論 論爭 : 그 소개 및 韓國의 社會心理學에 던지는 意味", 『사회과학연구』 8(1) (1986), 159-189면.

103) 최상진, 위의 논문, 78면.

제 4 장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공정성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강태경 · 석혜원 · 김지영 · 최영신

제4장

공정성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

제1절 | 연상어 조사

1. 조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115명(남 563명, 여 552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pm 2.2\%$)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23. 6. 29. ~ 7. 2.)를 실시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구체적인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제2절에 제시하였다.

조사도구

공정성 연상어 및 공정성 평가 근거

본 연구는 프로토타입 분석을 통해 공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개방형 질문을 통해 '공정성 연상어'와 우리 사회에 대한 '공정성 평가 근거'를 살펴봄으로써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내용을 탐색한다.

- 귀하는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 귀하가 앞 문항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 라고 응답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 귀하는 우리사회가 공정하려면 이전 문항에서 응답한 아래 응답값 가운데 가장 중요한(최우선) 것은 무엇입니까?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종교, 정치 성향, 직업 및 전공의 법 관련성,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수준, 거주 지역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중도보수-중도진보-진보’(4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개인차 변인

이 조사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될 수 있는 개인차 변인도 함께 측정하였다.

• 부당한 세상 인식 척도(Unjust Views Scale; UJVS)(7점 척도)

부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n unjust world: BUW)은 세상이 부정의하며 사람들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믿음이다. Lench와 Chang(2007)은 BUW를 측정하는 하는 ‘부당한 세상 인식 척도(Unjust Views Scale; UJVS)’를 개발하였다.¹⁰⁴⁾ 이 척도는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판 척도인 ‘Korean Unjust Views Scale(K-UJVS)’가 개발된 바 있다.¹⁰⁵⁾ 이 조사에서는 UJVS를 기본으로 하고, K-UJVS를 참고하여 UJVS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 절차 및 분배적으로 정당한 세상 신념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7점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BJW)은 세상이 정당하며 사람들은 자기 노력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는다는 믿음이다. Lucas 등(2007)은 BJW를 측정하는 도구로 ‘절차 및 분배적으로 정당한 세상 신념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개발하였다.¹⁰⁶⁾ 이 척도는 절차적 정의에 관한

104) Heather C. Lench & Esther S. Chang,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2007), pp.126-35.

105) 김은하·김해빈·김지윤, “한국어판 불공정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화”, 『인간이해』 42(2) (2021), 101-124면. 김은하 등은 ‘unjust view’를 ‘불공정에 대한 인식’으로 번역하였지만, ‘공정’의 독자적인 의미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맞춘 본 보고서에서는 ‘unjust’를 ‘부당한’으로 번역하고 ‘unjust view’는 ‘세상이 부당하다는 관점’이라는 의미를 살려 ‘부당한 세상 인식’이라고 변환하여 사용한다.

106) T. Lucas et al.,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신념 문항과 분배적 정의에 관한 신념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들은 자기에 대한 인식과 일반적 타인에 대한 인식을 묻는 두 종류의 질문으로 나뉜다. 한국어판 척도인 ‘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K-BJWS)’이 개발된 바 있다.¹⁰⁷⁾ 이 조사에서는 PDJWB를 기본으로 하고, K-BJWS를 참고하여 PDJWB를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 도덕적 기반 질문지(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s)(6점 척도)

도덕적 기반 이론(moral foundations theory)은 Haidt와 Graham을 중심으로 한 사회 및 문화 심리학자 팀이 범문화적으로 발견되는 도덕성의 공통 주제와 유사성을 설명하기 위해 개발한 이론이다.¹⁰⁸⁾ Haidt와 Graham(2004)은 도덕적 기반에는 위해/배려(harm/care), 공정성/호혜성(fairness/reciprocity), 내집단/충성(ingroup/loyalty), 권위/존중(authority/respect), 순수/신성성(purity/sanctity)이 존재한다고 규정하였고, Iyer 등(2012)은 자유(liberty)도 도덕적 기반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¹⁰⁹⁾ 최근에는 도덕적 기반으로서 명예(honor), 소유권(ownership)에 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¹¹⁰⁾ 이 조사에서는 여섯 가지 도덕적 기반(위해, 공정성, 내집단, 권위, 순수, 자유)에 관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자유를 제외한 다섯 가지 도덕적 기반 질문지는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에 관한 질문지는 자유주의적 성향에 관한 9문항(경제적 자유-6문항, 라이프 스타일-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섯 가지 도덕적 기반 질문지(MFQ-30)는 MoralFoundations.org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번역본을 참고하여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여 사용하였고, 자유에 관한 질문지는 Iyer 등(2012)의 질문을 최대한 자연스럽게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2007), 71-82.

107) 김은하·김도연·박한솔·김수용·김지수,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2017), 689면.

108) Moral Foundations 홈페이지(<https://moralfoundations.org>, 최종접속일 2023. 11. 10.).

109) R. Iyer et al., “Understanding libertarian morality: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s of self-identified libertarians”, 『PloS one』 7(8) (2012), e42366.

110) M. Atari, J. Graham, & M. Dehghani, “Foundations of morality in Ira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41(5) (2020), pp.367-384; M. Atari, J. Haidt, “Ownership is (likely to be) a moral founda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46 (2023), e326.

-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7점 척도)

불공정한 상황에 대한 민감성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상황을 피해자(victim), 가해자(perpetrator), 수혜자(beneficiary), 관찰자(observer) 관점 중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¹¹¹⁾ 피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처한 경우에 대한 민감성을, 가해자 정의민감성은 자기가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경우에 대한 민감성을, 수혜자 정의민감성은 자기가 불공정한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혜택을 받은 것에 대한 민감성을, 관찰자 정의민감성은 불공정한 상황을 목격하는 것에 대한 민감성을 의미한다.¹¹²⁾ Schmitt 등(2005)은 40문항으로 구성된 정의민감성 척도를 개발하였고, Baumert 등(2014)은 8문항으로 단축하여 타당화 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Baumert 등(2014)이 단축한 척도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2. 조사대상자 특성

가.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남성은 563명(50.5%), 여성은 552명(49.5%)으로 남성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30대(20.4%)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대(20.2%), 20대·60대 이상(20.1%), 50대(19.2%)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 학력을 보면 대졸 이하(68.9%)가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20.4%), 대학원 이상(10.8%)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종교(58.0%)가 가장 많았고 개신교(17.0%), 불교(13.2%), 천주교(8.8%), 이외 종교(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치 성향은 중도 진보(40.9%)가 가장 많았고 중도 보수(39.6%), 보수(11.5%), 진보(8.1%)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 및 전공 관련성은 없다(81.5%)가 가장 많았고 약간 있다(14.3%), 매우 높다(4.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수준은 보통(54.1%)이 가장 많았고 낮은 편(29.1%), 높은 편(9.1%), 매우 낮음(7.2%), 매우 높음(0.5%)의 순으로 나타났다.

111) M. Schmitt, M. Gollwitzer, J. Maes, & D. Arbach, "Justice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05), pp.202-211.

112) A. Baumert, C. Beierlein, M. Schmitt, C. J. Kemper, A. Kovaleva, S. Liebig, & B. Rammstedt, "Measuring four perspectives of justice sensitivity with two items e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3) (2014), pp.380-390.

다. 거주 지역은 경기/인천(30.2%)이 가장 많았고 서울(27.2%), 부산/울산/경남(14.3%), 대전/충청/세종(9.6%), 대구/경북(8.3%), 전주/전라(7.3%), 강원/제주(3.1%)의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1-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단위: 명(%)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563	(50.5)
	여성	552	(49.5)
	계	1,115	(100.0)
연령	20대	224	(20.1)
	30대	228	(20.4)
	40대	225	(20.2)
	50대	214	(19.2)
	60대 이상	224	(20.1)
	계	1,115	(100.0)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7	(20.4)
	대졸 이하	768	(68.9)
	대학원 이상	120	(10.8)
	계	1,115	(100.0)
종교	무종교	647	(58.0)
	개신교	190	(17.0)
	천주교	98	(8.8)
	불교	147	(13.2)
	이외 종교	33	(3.0)
	계	1,115	(100.0)
정치 성향	보수	128	(11.5)
	중도 보수	441	(39.6)
	중도 진보	456	(40.9)
	진보	90	(8.1)
	계	1,115	(100.0)
직업 및 전공 관련성	매우 높다	47	(4.2)
	약간 있다	159	(14.3)
	없다	909	(81.5)
	계	1,115	(100.0)

구분		빈도(명)	비율(%)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수준	매우 높음	6	(0.5)
	높은 편	101	(9.1)
	보통	603	(54.1)
	낮은 편	325	(29.1)
	매우 낮음	80	(7.2)
	계	1,115	(100.0)
거주 지역	서울	303	(27.2)
	경기/인천	337	(30.2)
	대전/충청/세종	107	(9.6)
	전주/전라	81	(7.3)
	대구/경북	93	(8.3)
	부산/울산/경남	159	(14.3)
	강원/제주	35	(3.1)
	계	1,115	(100.0)

나. 개인차 변인 기술통계

각 변인들의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변인에 대한 기술통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4-1-2]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단위: 명(%)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불공정한 세상 신념	1,115	2	7	4.52	0.86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1,115	1	7	4.18	0.96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1,115	1	7	3.74	1.11
분배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1,115	2	7	4.72	0.93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1,115	1	7	4.62	0.96
도덕 기반	1,115	1	6	4.04	0.48
피해자 정의민감성	1,115	1	7	3.98	1.32

구분	빈도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관찰자 정의민감성	1,115	1	7	4.18	1.26
수혜자 정의민감성	1,115	1	7	3.53	1.27
가해자 정의민감성	1,115	1	7	5.05	1.35

불공정한 세상 신념의 평균은 4.52, 표준편차는 0.8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의 평균은 4.18, 표준편차는 0.9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절차 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의 평균은 3.74, 표준편차는 1.11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분배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평균은 4.72, 표준편차는 0.93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2,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의 평균은 4.62, 표준편차는 0.9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도덕 기반의 평균은 4.04, 표준편차는 0.48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6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정의민감성의 평균은 3.98, 표준편차는 1.32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관찰자 정의민감성의 평균은 4.18, 표준편차는 1.26으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수혜자 정의민감성의 평균은 3.53, 표준편차는 1.27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가해자 정의민감성의 평균은 5.05, 표준편차는 1.35로 나타났으며, 최소값은 1, 최대값은 7로 나타났다.

3. 공정성 평가

가. 공정성 평가 점수

1) 사회인구학적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

각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종교의 경우, 불교, 개신교, 천주교, 기타 등을 '종교 있음'으로 묶어 '무종교'와 함께 2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정치성향의 경우, 진보와 중도진보를 '진보'로, 보수와 중도보수를 '보수'로 묶어 2집단으로 분석하였다.

▶▶▶ [표 4-1-3]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

구분		빈도(명)	평균	중간값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성별	남성	563	2.33	2	0.89	1	5
	여성	552	2.35	2	0.81	1	4
연령	20대	224	2.49	2	0.81	1	5
	30대	228	2.36	2	0.88	1	4
	40대	225	2.24	2	0.84	1	4
	50대	214	2.28	2	0.84	1	4
	60대 이상	224	2.33	2	0.87	1	4
최종학력	고졸 이하	227	2.32	2	0.83	1	4
	대졸 이하	768	2.33	2	0.86	1	5
	대학원 이상	120	2.38	2	0.82	1	4
종교	무종교	647	2.3	2	0.86	1	5
	종교있음	468	2.39	2	0.83	1	5
직업 및 전공 - 법 관련성	매우 높다	47	2.51	3	0.95	1	4
	약간 있다	159	2.43	2	0.89	1	4
	없다	909	2.31	2	0.83	1	5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매우 높음	6	2.67	3	1.03	1	4
	높은 편	101	2.58	3	1.01	1	5
	보통	603	2.45	2	0.8	1	5
	낮은 편	325	2.19	2	0.8	1	4
	매우 낮음	80	1.73	2	0.76	1	3
거주 지역	서울	303	2.31	2	0.84	1	5
	경기/인천	337	2.36	2	0.85	1	4
	대전/충청/세종	107	2.35	2	0.9	1	5
	광주/전라	81	2.3	2	0.87	1	4
	대구/경북	93	2.35	2	0.8	1	4
	부산/울산/ 경남	159	2.36	2	0.87	1	4
	강원/제주	35	2.2	2	0.83	1	4
정치성향	보수	569	2.45	2	0.84	1	5
	진도	546	2.22	2	0.84	1	5

각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공정성 평가 점수에 차이가 있는지 ANOVA를 실시한 결과는 <표 4-1-4>와 같다. 연령, 경제적 여유에 따라 공정성 평가

점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OVA 결과에서 유의하게 나온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사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1-5>와 같다. ANOVA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성향이 '보수'인 집단이 '진보'인 집단보다 공정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보수 집단이 진보 집단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집단의 공정성 평가도 평균 2.45점(3점: 그저 그렇다)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둘째, 40대에 비해 20대가 공정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20대가 40대에 비해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대 집단의 공정성 평가도 평균 2.49점(3점: 그저 그렇다)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여유가 '높은 편' 또는 '매우 높음'인 집단이 '낮은 편' 혹은 '매우 낮음' 집단보다 공정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경제적 여유가 '매우 높음'인 집단이 '높은 편'인 집단에 비해서도 공정성 평가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즉,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우리 사회가 더 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적 여유가 매우 높거나 높은 집단 모두 공정성 평가 점수의 평균이 3점(그저 그렇다) 미만으로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정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경제적 여유 '매우 높음' 집단 평균 = 2.67점, 경제적 여유 '높음' 집단 평균 = 2.58점).

▶▶▶ [표 4-1-4] 집단별 공정성 평가 점수 ANOVA 결과

변인	자유도(분자, 분모)	F	유의확률
성별	1, 1113	0.20	0.6543
연령	4, 1110	2.88	0.0219
최종 학력	2, 1112	0.24	0.7844
종교	4, 1110	2.50	0.0408
법률 관련성	2, 1112	2.31	0.0997
경제적 여유	4, 1110	18.85	0.0000
거주 지역	6, 1108	0.32	0.9275
정치적 성향	1, 1113	21.85	0.0000

» [표 4-1-5] 연령, 경제적 여유 집단 간 공정성 평가 점수 비교 사후분석 결과

변인	집단 1	집단 2	평균차이 (집단1 - 집단2)	유의확률
연령	20대	30대	0.13	0.4656
	20대	40대	0.25	0.0147
	20대	50대	0.21	0.0696
	20대	60대	0.16	0.2617
	30대	40대	0.12	0.5590
	30대	50대	0.08	0.8608
	30대	60대	0.03	0.9961
	40대	50대	-0.04	0.9877
	40대	60대	-0.09	0.7900
	50대	60대	-0.05	0.9718
경제적 여유	매우 높음	높은 편	0.08	0.9993
	매우 높음	보통	0.22	0.9679
	매우 높음	낮은 편	0.47	0.6314
	매우 높음	매우 낮음	0.94	0.0541
	높은 편	보통	0.13	0.5478
	높은 편	낮은 편	0.39	0.0003
	높은 편	매우 낮음	0.86	0.0000
	보통	낮은 편	0.26	0.0001
	보통	매우 낮음	0.72	0.0000
	낮은 편	매우 낮음	0.47	0.0001

2) 정치성향에 따른 개인차 변인 차이

(1) 부당한 세상 인식, 정당한 세상 신념, 정의감수성

정치성향에 따라 개인차 변인 중 ‘부당한 세상 인식(UJV)’, ‘정당한 세상 신념(PDJWB)’, ‘정의감수성(Justice Sensitivity)’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R을 사용하여 보수, 진보 집단의 각 변인 측정값에 대해 독립집단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집단 t검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4-1-6]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변인	보수 집단 평균	진보 집단 평균	t	자유도	유의 확률
부당한 세상 인식	4.47	4.58	-2.22	1113	0.0263
일반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4.3	4.05	4.34	1113	0.0000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	3.79	3.68	1.76	1113	0.0779
개인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4.79	4.65	2.52	1113	0.0118
개인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	4.66	4.58	1.46	1113	0.1439
피해자 정의민감성	3.92	4.03	-1.40	1113	0.1621
관찰자 정의민감성	4.01	4.35	-4.52	1113	0.0000
수혜자 정의민감성	3.41	3.66	-3.37	1113	0.0008
가해자 정의민감성	4.97	5.14	-2.10	1113	0.0357

분석 결과, 보수와 진보 집단 간에 아래 개인차 변인들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testwise alpha = .05). 아래 결과에서 괄호 안의 기호는 집단 간 평균 차이(진보 - 집단)의 방향을 나타낸다. (+)는 보수 집단의 해당 변수 평균이 진보 집단보다 더 높음을 나타내고(보수 < 진보), (-)는 진보 집단의 해당 변수의 평균이 보수 집단에 비해 더 높음을 나타낸다(보수 > 진보).

- 부당한 세상 신념(+)
- 일반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 개인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 관찰자 정의민감성(+)
- 수혜자 정의민감성(+)
- 가해자 정의민감성(+)

첫째, 세상이 부당하다는 인식에 있어서,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세상이 부당하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믿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수 집단의 부당한 세상 인식도 평균 4.47점(4점: 그저 그렇다)으로 세상이 부당하며 사람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보수 집단에서도 나타났다.

둘째, 분배적 차원에서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에 있어서,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에

비해 자기나 다른 사람들이 제몫을 받고 있다고 믿는 경향이 강했다(일반적·개인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다만, 진보 집단의 분배적 차원에서의 정당한 세상 신념은 평균 4점(그저 그렇다)을 넘으므로 분배적 차원에서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경향이 진보 집단에서도 나타났다(개인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 4.65점, 일반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 4.05점). 앞서 살펴본 부당한 세상 인식과 정당한 세상 신념의 결과가 모순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부당한 세상 인식은 정당한 세상 신념과는 구별되는 또 다른 성향을 측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결과를 모순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셋째, 정의민감성에 있어서, 진보 집단이 보수 집단에 비해 관찰자 정의민감성, 수혜자 정의민감성,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을 본 경우(관찰자)뿐만 아니라, 자기가 타인에 비해 정당한 이유 없이 혜택을 더 받은 경우(수혜자), 자기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으로부터 이익을 취한 경우(가해자) 분노를 더 강하게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자기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경우(피해자)에 느낄 것이라고 응답한 분노의 정도에서는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도덕적 기반

정치성향에 따라 개인차 변인 중 ‘도덕적 기반(Moral Foundations)’에서 차이가 있는 알아보기 위해서, R을 사용하여 보수, 진보 집단의 도덕적 기반 질문지 측정값에 대해 독립집단 t검정을 실시하였다. 독립집단 t검정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4-1-7]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변인	보수 집단 평균	진보 집단 평균	t	자유도	유의 확률
위해(Harm/Care)	4.32	4.46	-3.54	1113	0.0004
공정성(Fairness /Reciprocity)	4.15	4.38	-5.73	1113	0
내집단(In-group/Loyalty)	3.85	3.87	-0.53	1113	0.5959
권위(Authority/Respect)	3.88	3.8	2.15	1113	0.0316
순수(Purity/Sanctity)	3.95	3.96	-0.19	1113	0.8507
자유(경제)(Econ/Gov Liberty)	3.85	3.78	2.05	1113	0.0409
자유(라이프스타일)(Lifestyle Liberty)	4.28	4.31	-0.62	1113	0.5347

분석 결과, 도덕기반 차원 중 위해(Harm/Care),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권위(Authority/Respect), 경제적 자유(Econ/Government Liberty) 차원에서 정치 성향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아래 결과에서 괄호 안의 기호는 집단 간 평균 차이(진보 - 집단)의 방향을 나타낸다. (+)는 보수 집단의 해당 변수 평균이 진보 집단보다 더 높음을 나타내고(보수 < 진보), (-)는 진보 집단의 해당 변수의 평균이 보수 집단에 비해 더 높음을 나타낸다(보수 >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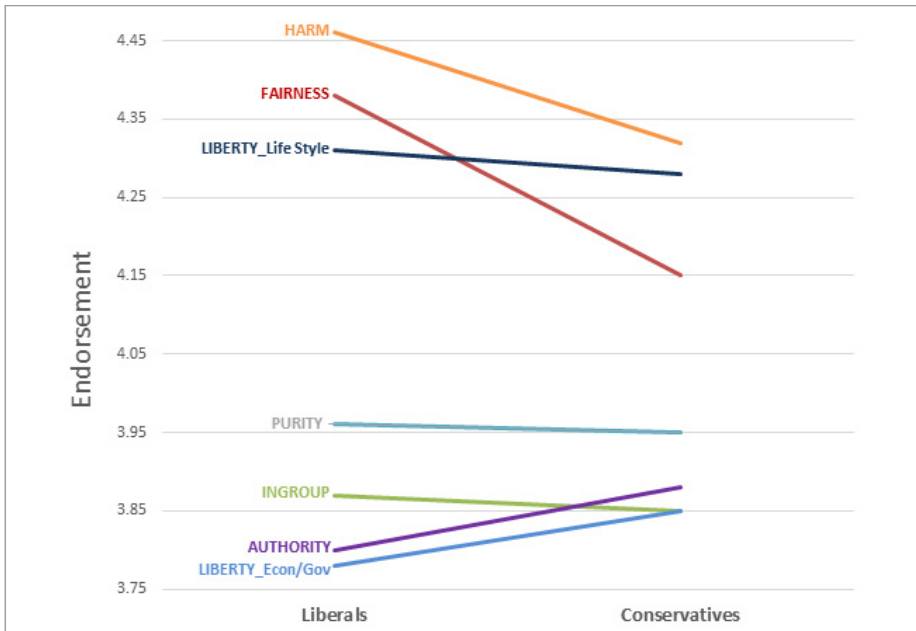
- 위해(Harm/Care)(+)
-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 권위(Authority/Respect)(-)
- 경제적 자유(Econ/Gov Liberty)(-)

첫째,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자)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지(Harm/Care)와 어떤 행위(자)가 공정한 기준이나 절차를 따르는지(Fairness/Reciprocity)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수 집단은 진보 집단에 비해 옳고 그름과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위(자)가 사회·제도·문화적으로 인정되는 권위나 전통에 어긋나는지(Authority/Respect)와 정부가 사유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경제적인 개입을 최소화하는지(Econ/Government Liberty)를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이 도덕적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의 차이에 관한 결과는, ① 진보 성향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위해(Harm/Care)'와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요인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다른 요인들은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지만, ② 보수 성향 사람들은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 '위해(Harm/Care)'와 '공정성(Fairness/Reciprocity)'뿐만 아니라 '내집단(Ingroup /Loyalty)', '권위(Authority/Respect)', '순수(Purity/Sanctity)'를 두루 고려한다는 기존 도덕기반 연구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림 4-1-1] 정치성향 집단별 도덕적 기반 고려 정도



나. 공정성 평가 근거

1) 공정성 평가 근거에 사용된 단어 빈도

공정성 평가의 근거를 묻는 다음과 같은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에 사용된 명사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 귀하가 앞 문항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 라고 응답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은전한닢 프로젝트에 기반한 mecab-ko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위 문항에 대한 응답으로부터 형태소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형태소 중 명사(일반명사 및 고유명사)만을 선별하여, 총 빈도수가 10 이상인 단어를 대상으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모든 분석은 R에서 수행하였고, 형태소 분석에는 RcppMeCab, Rmecabko 패키지를, 워드클라우드 생성을 위해서는 wordcloud2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응답으로부터 추출된 명사는 총 1,112개였으며, 이 명사들이 사용된 빈도의 총합은 4,889번이었다. 이 중 빈도가 10 이상인 명사는 아래 제시된 것과 같이 95개였고(빈도 높은 순으로 제시), 이 명사들이 사용된 빈도의 총합은 2,829번이었다.

공정, 사회, 사람, 생각, 권력, 법, 기회, 돈, 평등, 비리, 뉴스, 때, 차별, 기득, 정치, 부분, 나라, 노력, 지연, 기준, 힘, 빈부, 일, 격차, 학연, 경우, 정치인, 차이, 무죄, 부, 세상, 부익부, 처벌, 빈익빈, 유전, 판결, 문제, 적용, 현실, 결과, 정부, 존재, 지위, 말, 사건, 혜택, 인맥, 곳, 공평, 국가, 기사, 무전, 부정, 앞, 유죄, 자녀, 혈연, 권력자, 범죄, 부자, 부정부패, 사례, 약자, 언론, 유리, 취업, 국민, 대우, 면, 상황, 죄, 계층, 능력, 성공, 편파, 피해자, 경제, 고위, 느낌, 만연, 모두, 이익, 정도, 주변, 형량, 공직자, 모습, 분야, 사고, 자신, 재산, 제도, 집단, 찬스, 특혜

이 중 사용 빈도가 가장 높았던 명사였던 ‘공정’(사용빈도: 357번)을 제거한 나머지 94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

▶▶ [그림 4-1-2] 공정성 평가 근거에 사용된 단어들의 워드클라우드



2) 공정성 평가의 근거의 내용 분석

공정성 평가의 근거를 묻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내용 분석은 Charmaz(2014)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을 따랐다.¹¹³⁾ 근거이론 방법에서는 복수의 평정자가 공정성 평가 근거에 관한 문항의 응답을 읽고, 패턴과 공통된 생각을 메모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범주를 생성·수정·통합하여 최적화하게 된다. 구체적인 코딩은 초기코딩, 초점코딩의 순서를 따랐다. 초기코딩 단계에서는 자료를 정리하여 유사한 내용끼리 범주화하여 적절한 개념을 붙이고, 초점코딩 단계에서는 초기코딩에서 만들어진 범주를 좀 더 추상적인 범주로 구조화한다.¹¹⁴⁾ 공정성 평가 근거 응답 코딩에는 법학 전공자 1인과 심리학 전공자 1인이 참여하였다. 응답 중 “매우 공정하지 않다.,” “그저 그렇다.” 등과 같이 공정성 평가의 근거를 기술하지 않은 응답 161건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전체 빈도가 10 이상인 주제어는 아래와 같이 총 27개로 추출되었다.

▶▶▶ [표 4-1-8] 공정성 평가 주제어(빈도 ≥ 10)

주제어(초점 코딩)	빈도	주제어(초점 코딩)	빈도
사법 불평등	58	공정한 기준 부재	22
빈부격차 심화	54	양형 불균형	19
강자 우대 사회	53	개인경험/관찰	18
연고주의	52	입시/취업비리	16
기득권/카르텔	44	정치 텃	16
계층 대물림	43	법 앞의 불평등	15
부정부패 만연	39	정치인 텃	15
기회 불균등	38	노력에 합당한 대가	14
강자의 위력	37	강자의 법무시	13
사건보도	36	기회 균등	13
차별	36	자의적 사법권력	13
빈부차별	35	이기주의	11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26	민주주의	10

113) Charmaz, Op. cit.

114) 강태경, 앞의 논문, 29면.

사법 불평등, 빈부격차 심화, 강자 우대 사회, 연고주의, 기득권/카르텔, 계층 대물림, 부정부패 만연, 기회 불균등, 강자의 위력, 사건보도, 차별, 빈부차별,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정부 탓, 공정한 기준 부재, 양형 불균형, 개인경험/관찰, 입시/취업비리, 정치 탓, 법 앞의 불평등, 정치인 탓, 노력에 합당한 대가, 강자의 법무시, 기회 균등, 자의적 사법권력, 이기주의, 민주주의

전체 빈도가 10 이상인 주제어가 해당하는 영역, 즉 정치, 경제, 사법, 사회 등에 따라 주제어를 분류하면 ‘사회 일반적 경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주제어가 4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법’(118건), ‘경제’(103건), ‘정치’(91건)가 그 뒤를 이었다.

‘사회 일반적 경향’에 관한 응답 중에서 ‘기득권/카르텔’과 ‘연고주의’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이익을 둘러싼 집단주의 경향을 지적한 응답이 96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자 우대 사회’와 ‘강자의 위력’과 같이 강자에게 유리한 사회 분위기를 지적한 응답이 9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계층의 대물림’과 출신 배경 등에 따른 ‘기회 불균등’, 즉 사회계층의 문제를 지적한 응답도 81건이었다.

‘사법’에 관한 응답의 절반 정도(58/118건)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쫓값을 치르지 않는 사법 불평등을 지적하였고, 이 중 상당수가 ‘유전무죄’를 직접 언급하였다. 한편 일부 응답은 강자에게 유리한 사법을 지적하기보다 형벌이 가볍다는 지적을 하고 있었다(양형 불균형).

‘경제’에 관한 응답 대부분(89/103건)은 ‘빈부격차 심화’와 ‘빈부차별’이 차지했는데, 응답은 빈부격차라는 상태에 주목한 답변(54건)이 빈부격차에 따른 차별을 지적한 답변(35건)보다 많았다.

» [표 4-1-9] 공정성 평가 근거 이론적 코딩(빈도 ≥ 10)

이론적 코딩(빈도)	초점 코딩	빈도
강자우위(199)	강자 우대 사회	53
	연고주의	52
	기득권/카르텔	44
	강자의 위력	37
	강자의 법 무시	13
빈부격차(89)	빈부격차 심화	54
	빈부차별	35

이론적 코딩(빈도)	초점 코딩	빈도
사법(90)	사법 불평등	58
	양형 불균형	19
	자의적 사법권력	13
부정부패(81)	부정부패 만연	39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26
	입시/취업비리	16
평등(66)	기회 불균등	38
	법 앞의 불평등	15
	기회 균등	13
신분차(43)	계층 대물림	43
사건보도(36)	사건보도	36
정치(31)	정치 탓	16
	정치인 탓	15
준칙(22)	공정한 기준 부재	22
차별(36)	차별	36
기타	개인경험/관찰	18
	노력에 합당한 대가	14
	이기주의	11
	민주주의	10

이론적 코딩은 초기코딩과 초점코딩의 내용을 중심으로 현상을 분석하고 서술할 수 있는 상위 범주를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론적 코딩 한 결과,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주된 근거로는 ‘강자우위’, ‘빈부격차’, ‘사법’, ‘부정부패’, ‘(불)평등’, ‘신분차’ 등이 지적되었다.

3) 정치성향별 공정성 평가 근거

정치성향에 따라 공정성 평가 근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의 공정성 평가 근거 주제어의 빈도를 비교하였다. 공정성 평가 근거를 언급하지 않은 응답 161건이 제외되었다. 전체 빈도가 10 이상인 주제어는 아래와 같이 총 27개로 추출되었고, 집단별 빈도 10 이상인 주제어(초점 코딩)는 다음 표와 같다.

▶▶ [표 4-1-10] 정치성향별 공정성 평가 근거 주제어(빈도 ≥ 10)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주제어(초점 코딩)	빈도	주제어(초점 코딩)	빈도
연고주의	32	강자 우대 사회	34
계층 대물림	24	사법 불평등	34
사법 불평등	24	빈부격차 심화	32
강자의 위력	23	기득권/카르텔	25
빈부격차 심화	22	부정부패 만연	24
강자 우대 사회	19	기회 불균등	20
기득권/카르텔	19	연고주의	20
사건보도	19	계층 대물림	19
기회 불균등	18	빈부차별	18
차별	18	차별	18
빈부차별	17	사건보도	17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16	강자의 위력	14
부정부패 만연	15	정부 탓	14
정치인 탓	11	공정한 기준 부재	12
개인경험/관찰	10	양형 불균형	11
공정한 기준 부재	10	자의적 사법권력	11
정부 탓	10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10
정치 탓	10		

연고주의, 계층 대물림, 사법 불평등, 강자의 위력, 빈부격차 심화, 강자 우대 사회, 기득권/카르텔, 사건보도, 기회 불균등, 차별, 빈부차별,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부정부패 만연, 정치인 탓, 개인경험/관찰, 공정한 기준 부재, 정부 탓, 정치 탓, 노력에 합당한 대가, 기회 균등, 양형 불균형, 입시/취업비리, 법 앞의 불평등, 강자의 법무시, 민주주의, 불평등 만연, 이기주의

각 집단별 주제어 상위 10위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경향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진보 집단과 보수 집단 모두 공통적으로 집단주의 문화에 따른 ‘연고주의’와 ‘기득권/카르텔’ 문제와 유전무죄로 표현되는 ‘사법 불평등’ 그리고 강자에게 유리한 ‘강자 우대 사회’와 ‘계층 대물림’과 ‘기회 불균등’으로 대표되는 사회계층 문제를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저하시키는 이유로 지적하였다.

반면에 진보 집단에서는 ‘부정부패 만연’(5위)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수 집단에서는 그 지적 빈도가 낮았다.

또한 보수 집단에서는 권력이나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실력을 행사하는 ‘강자의 위력’(4위)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진보 집단에서는 그 지적 빈도가 낮았다.

한편 보수 집단은 ‘부정부패 만연’(13위)만큼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12위)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서 보수 집단은 권력이나 부를 가진 개인의 편법이나 불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

이론적 코딩 한 결과, 보수 집단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주된 근거로는 ‘강자우위’, ‘빈부격차’, ‘연고주의’, ‘부정부패’, ‘정치’ 등을 지적하였다. 반면에 진보집단은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주된 근거로는 ‘강자우위’, ‘사법’, ‘빈부격차’, ‘부정부패’, ‘연고주의’, ‘(불)평등’을 지적하였다.

» [표 4-1-11] 정치성향별 공정성 평가 근거 이론적 코딩(빈도 ≥ 10)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이론코딩	초점 코딩	빈도	이론코딩	초점 코딩	빈도
강자우위(61)	강자의 위력	23	강자우위(73)	강자 우대 사회	34
	강자 우대 사회	19		기득권/카르텔	25
	기득권/카르텔	19		강자의 위력	14
빈부격차(39)	빈부격차 심화	22	사법(56)	사법 불평등	34
	빈부차별	17		양형 불균형	11
연고주의(32)	연고주의	32		자의적 사법권력	11
부정부패(31)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16	빈부격차(50)	빈부격차 심화	32
	부정부패 만연	15		빈부차별	18
정치(31)	정치인 탓	11	부정부패(34)	부정부패 만연	24
	정부 탓	10		공직자/정치인 부정부패	10
	정치 탓	10	연고주의(20)	연고주의	20
사법(24)	사법 불평등	24	평등(20)	기회 불균등	20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이론코딩	초점 코딩	빈도	이론코딩	초점 코딩	빈도
신분차(24)	계층 대물림	24	신분차(19)	계층 대물림	19
사건보도(19)	사건보도	19	차별(18)	차별	18
차별(18)	차별	18	사건보도(17)	사건보도	17
평등(18)	기회 불균등	18	정치(14)	정부 탓	14
개인경험(10)	개인경험/관찰	10	준칙(12)	공정한 기준 부재	12
준칙(10)	공정한 기준 부재	10			

4. ‘공정’ 연상어

가. 연상어 빈도

1) 전체 연상어 빈도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오르는 단어를 쓰도록 한 개방형 문항의 전체 응답을 모두 합친 후 각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 분석을 위해서 4명의 평정자가 총 4,726개의 응답들을 유사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각 범주를 대표할 수 있는 특징을 나타내는 205개의 단어를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공명’, ‘공명정대’, ‘공평’, ‘정정당당’, ‘치우치지 않음’, ‘편애가 없음’ 등은 ‘공평무사’로, ‘부패’, ‘반부패’, ‘비리척결’, ‘부정행위’ 등은 ‘부정부패’로 범주화하였다. ‘공정’, ‘fair’와 같이 공정성을 그대로 반복하는 응답이나 ‘언제나’, ‘이별’ 등과 같이 ‘공정성’과 연관되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 수 없는 응답 81개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범주화 결과에 기반하여 응답 빈도가 20회 이상인 연상어 42개의 각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프로토타입 분석 연구에서 응답자 집단이 150명 정도인 경우 언급 빈도가 3회 이상인 단어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¹¹⁵⁾ 이를 참고하여 응답자 집단이 1,115명이었던 이 조사에서는 응답 빈도를 20회 이상으로 설정하였다. 빈도의 중간값(53회)을 기준으로 고빈도 연상어와 저빈도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빈도응답 빈도가 20회 이상인 단어를 사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R에서 wordcloud2 패키지 사용).

115) S. X. Luo et al., op. cit., p.756.

» [표 4-1-12] 공정성 연상어(빈도 ≥ 20)

고빈도 연상어	빈도(회)	저빈도 연상어	빈도(회)
평등	915	공공성	49
공평무사	504	다수결	47
민주주의	197	시장경제	41
차별	177	수사	39
준칙	174	권리	37
정의	153	능력주의	35
정치	133	빈부격차	35
정직	119	연고주의	34
부정부패	114	상식	33
신뢰	104	긍정적 인상	32
경쟁	91	강자우위	30
부정적 인상	91	과제	30
사법	90	교육	30
분배	88	신분차	29
형평	78	평화	28
시험	72	합리성	26
자유	67	준법	24
배려	66	도덕	23
수용성	62	타당성	22
가치	60	객관성	21
투명성	54	법치	21
취업	53		

» [그림 4-1-3] 공정성 연상어 워드클라우드(빈도 ≥ 20)



2) 최우선 연상어 빈도

응답자들은 자기가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올렸다고 쓴 단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택한 최우선 응답을 모두 합친 후 각 단어가 몇 번 등장했는지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범주화 과정을 거친 연상어이다(‘가. 전체 연상어 빈도’ 참조). 총 1,115개 응답 중 그 의미를 알 수 없는 등 부적절한 응답 19개가 제외되었다. 범주화 결과에 기반하여 응답 빈도가 5회 이상인 연상어는 아래 표와 같다. 전체 연상어는 한 응답자가 평균적으로 4.7개의 단어(또는 어구)를 생성했지만, 최우선 연상어는 각 응답자가 1개의 단어(또는 어구)만을 선택했기 때문에 분석 대상의 범위를 빈도 5회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빈도의 중간값(9회)을 기준으로 고빈도 연상어와 저빈도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 [표 4-1-13]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빈도 ≥ 5)(빈도 중간값=9)

고빈도 최우선 연상어	빈도	저빈도 최우선 연상어	빈도
평등	338	공공성	8
공평무사	146	배려	8
준칙	54	상식	8
정의	50	수사	8
정직	42	자유	7
정치	33	강자우위	6
차별	27	능력주의	6
민주주의	25	빈부격차	6
투명성	25	수용성	6
부정부패	19	신분차	6
사법	18	절차	6
형평	18	취업	6
신뢰	17	객관성	5
경쟁	14	도덕	5
분배	14	복지	5
법치	11	시험	5
부정적 인상	11	타당성	5
가치	10	평가	5
권리	10	행정	5
준법	9		

빈도응답 빈도가 5회 이상인 단어를 사용하여 워드클라우드를 생성하였다(R에서 wordcloud2 패키지 사용).

» [그림 4-1-4]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 워드클라우드(빈도 ≥ 5)



3) 전체 연상어와 최우선 연상어 빈도 비교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떠올린 연상어(특징)는 ‘공정’이라는 개념의 프로토타입에서 중심적 특징(central features) 또는 주변적 특징(peripheral features)에 해당한다. 표준적인 프로토타입 분석에서, 어떤 연상어가 중심성을 가지는지 또는 주변성을 가지는지는 자유연상 과제에 대한 응답을 토대로 작성한 특징 목록의 각 특징 ‘공정’과 얼마나 관련되는지 평가함으로써 판단한다.¹¹⁶⁾

이에 앞서 연상어의 전체 빈도와 최우선 빈도를 비교함으로써 전체 연상어와 최우선 연상어 빈도를 비교하였다.

116) Luo et al., Ibid., p.757.

▶▶ [표 4-1-14] 공정성 연상어 및 최우선 연상어 빈도

고빈도 연상어	전체 빈도(회)	최우선 빈도(회)	저빈도 연상어	전체 빈도(회)	최우선 빈도(회)
평등	915	338	공공성	49	8
공평무사	504	146	배려	66	8
준칙	174	54	상식	33	8
정의	153	50	수사	39	8
정직	119	42	자유	67	7
정치	133	33	강자우위	30	6
차별	177	27	능력주의	35	6
민주주의	197	25	빈부격차	35	6
투명성	54	25	수용성	62	6
부정부패	114	19	신분차	29	6
사법	90	18	절차	15	6
형평	78	18	취업	53	6
신뢰	104	17	객관성	21	5
경쟁	91	14	도덕	23	5
분배	88	14	복지	17	5
법치	21	11	시험	72	5
부정적 인상	91	11	타당성	22	5
가치	60	10	평가	15	5
권리	37	10	행정	19	5
준법	24	9			

최우선 연상어 빈도(338회~5회)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고빈도 연상어와 저빈도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빈도가 높을수록 ‘공정’에 더 가깝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토타입 분석을 활용한 선행 연구에서 중간값 분할을 통해서 중심성과 주변성을 구분하고 있지만,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중심 특징과 주변 특징 간의 빈도 차이가 작기 때문에 중간값 분할이 중심 특징과 주변 특징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의 중심적 측면은 ‘평등’과 관련이 있다. 이 조사에서 ‘평등’으로 범주화된 예시는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 등이었다.¹¹⁷⁾ 또한, ‘공평무사’, ‘준칙’, ‘정의’도 공정

의 중심적 특징으로 인식된다. 이는 ‘공평(무사)’과 ‘정의’는 ‘평등’과 함께 공정과 이론적으로나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혼용되는 개념이라는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제2장 참조). ‘법률’, ‘원칙’, ‘기준’ 등을 범주화한 ‘준칙’은 공평무사하고 평등한 적용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공정의 핵심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정직’도 공평무사한 태도나 부정한 방법을 회피하는 태도와 관련된 성품이라는 점에서 공정의 핵심적 특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한 조건과 관련된 응답을 범주화한 ‘경쟁’과 결과의 배분과 관련된 응답을 범주화한 ‘분배’도 공정의 핵심적인 특징에 속한다. 다만, ‘경쟁’과 ‘분배’는 ‘평등’, ‘공평무사’, ‘준칙’, ‘정의’에 비해 그 중심성이 약하다. 이에 반해, ‘능력주의’는 주변적 특징으로 분류되었다.

공정성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영역 중 ‘정치’, ‘민주주의’, ‘사법(司法)’이 공정에 있어 중심성이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시험’, ‘취업’, ‘행정’, ‘복지’ 등은 주변적 특징으로 분류되었다.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 현상 중 ‘차별’, ‘부정부패’가 공정에 있어 중심성이 있는 요소로 여겨진다. 이에 반해, ‘강자우위’, ‘빈부격차’, ‘신분차’는 주변적 특징으로 분류되었다.

나. 정치성향별 연상어 비교

1) 정치성향별 전체 연상어 빈도 비교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 각각 공정성 연상어 전체 응답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응답자를 보수 집단(보수 + 중도보수)과 진보 집단(진보 + 중도진보)으로 구분했을 때, 보수 집단은 569명, 진보 집단은 546명이었다. 보수 집단은 569명이 총 2,525개의 응답을, 진보 집단은 546명이 총 2,322개의 응답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보수 집단 응답 2,463개, 진보 집단 응답 2,263개가 분석에 사용되었다(부적절한 응답 121개 제외). 빈도 20 이상인 연상어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117) ‘결과의 평등’은 분배로, ‘동일한 조건’은 경쟁으로 범주화하였다.

▶▶▶ [표 4-1-15] 정치성향별 공정성 전체 연상어(빈도 ≥ 20)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연상어	빈도	연상어	빈도
평등	472	평등	443
공평무사	257	공평무사	247
민주주의	96	민주주의	101
준칙	94	차별	93
정의	86	준칙	80
차별	84	정의	67
정직	75	정치	65
정치	68	신뢰	63
부정부패	65	부정적 인상	51
경쟁	48	부정부패	49
분배	47	정직	44
사법	47	형평	44
신뢰	41	경쟁	43
부정적 인상	40	사법	43
시험	39	분배	41
자유	39	배려	33
형평	34	수용성	33
배려	33	시험	33
투명성	33	가치	30
취업	31	자유	28
가치	30	공공성	25
수용성	29	취업	22
다수결	27	권리	21
공공성	24	투명성	21
시장경제	23	다수결	20
능력주의	22	빈부격차	20
연고주의	21	수사	20
신분차	20		

보수와 진보 집단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빈도가 20 이상으로 나타난 연상어는 다음 24개였다(빈도순).

평등, 공평무사, 민주주의, 준칙, 정의, 차별, 정직, 정치, 부정부패, 경쟁, 분배, 사법, 신뢰, 부정적인상, 시험, 자유, 형평, 배려, 투명성, 취업, 가치, 수용성, 다수결, 공공성

보수 집단에서만 빈도가 20회 이상으로 나타난 연상어는 ‘시장경제’, ‘능력주의’, ‘연고주의’, ‘신분차’였다(빈도순). 그러나 이 중 ‘신분차’를 제외하고 다른 연상어는 진보 집단에서 빈도가 아주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시장경제(진보집단 빈도 = 18), 능력주의(보수집단 빈도 = 13), 연고주의(보수집단 빈도 = 13), 신분차(빈도 = 9)).

진보 집단에서만 빈도가 20회 이상으로 나타난 연상어는 ‘권리’, ‘빈부격차’, ‘수사’였다(빈도순). 그러나 이 연상어들은 진보 집단에서 빈도가 아주 낮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권리(보수집단 빈도 = 16), 빈부격차(보수집단 빈도 = 15), 수사(보수집단 빈도 = 19)).

추가적으로, 응답 비율(각 집단 내에서 전체 응답 개수 중 해당 응답이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서, 보수, 진보 두 집단 간 응답 비율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 단어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보수 집단의 응답 비율이 진보 집단에 비해 높은 단어들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10개 단어는 아래와 같음(차이 큰 순).

정직, 정의, 부정부패, 투명성, 신분차, 자유, 법치, 결과, 능력주의, 취업

진보 집단 응답 비율이 보수 집단에 비해 높은 단어들 중 그 차이가 가장 큰 10개 단어는 아래와 같음(차이 큰 순).

신뢰, 차별, 부정적 인상, 민주주의, 형평, 공평무사, 평등, 복지, 수용

▶▶▶ [표 4-1-16] 정치성향 간 공정성 전체 연상어 응답 비율 차이

연상어	보수 집단 빈도	진보 집단 빈도	보수 집단 비율	진보 집단 비율	집단 간 비율 차이
- 보수 집단 비율 > 진보 집단 비율 상위 10개 연상어					
정직	75	44	0.0305	0.0194	0.0111
정의	86	67	0.0349	0.0296	0.0053
부정부패	65	49	0.0264	0.0217	0.0047
투명성	33	21	0.0134	0.0093	0.0041
신분차	20	9	0.0081	0.0040	0.0041
자유	39	28	0.0158	0.0124	0.0034
법치	15	6	0.0061	0.0027	0.0034
결과	10	2	0.0041	0.0009	0.0032
능력주의	22	13	0.0089	0.0057	0.0032
취업	31	22	0.0126	0.0097	0.0029

연상어	보수 집단 빈도	진보 집단 빈도	보수 집단 비율	진보 집단 비율	집단 간 비율 차이
- 진보 집단 비율 > 보수 집단 비율 상위 10개 연상어					
신뢰	41	63	0.0166	0.0278	0.0112
차별	84	93	0.0341	0.0411	0.0070
부정적 인상	40	51	0.0162	0.0225	0.0063
민주주의	96	101	0.0390	0.0446	0.0056
형평	34	44	0.0138	0.0194	0.0056
공평무사	257	247	0.1043	0.1091	0.0048
평등	472	443	0.1916	0.1958	0.0042
복지	5	12	0.0020	0.0053	0.0033
수용성	29	33	0.0118	0.0146	0.0028
권리	16	21	0.0065	0.0093	0.0028

2) 정치성향별 최우선 연상어 빈도 비교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 각각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의 빈도를 산출하였다. 응답자를 보수 집단(보수 + 중도보수)과 진보 집단(진보 + 중도진보)으로 구분했을 때, 보수 집단은 569명, 진보 집단은 546명이었다. 이 중 보수 집단 10명, 진보 집단 9명의 응답은 부적절하여 제외되었고, 최종적으로 보수 집단 559명, 진보 집단 537명의 공정성 연상어 최우선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빈도가 5회 이상인 연상어의 빈도는 아래 표와 같다.

» [표 4-1-17] 정치성향별 공정성 최우선 연상어 응답 빈도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연상어		빈도	연상어		빈도
고 빈 도 연 상 어	평등	167	고 빈 도 연 상 어	평등	171
	공평무사	74		공평무사	72
	준칙	31		정의	23
	정의	27		준칙	23
	정직	27		정직	15
	정치	19		정치	14
	투명성	15		차별	14
	차별	13		민주주의	13
	민주주의	12		형평	12
	법치	9		부정부패	11
	신뢰	9		사법	10
				투명성	10

보수 집단			진보 집단		
연상어		빈도	연상어		빈도
저빈도 연상어	권리	8	저빈도 연상어	분배	9
	부정부패	8		신뢰	8
	사법	8		경쟁	7
	경쟁	7		가치	6
	부정적 인상	7		공공성	6
	준법	6		수사	6
	형평	6		배려	5
	분배	5		빈부격차	5
	자유	5		수용성	5

각 정치성향 집단의 최우선 연상어 빈도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중심 연상어와 주변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빈도가 높을수록 '공정'에 더 가깝고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수 집단과 진보 집단 모두에서 '평등', '공평무사', '준칙', '정의', '정직', '정치', '투명성', '차별', '민주주의'가 공정의 중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공평 개념의 내용과 관련해서 '평등', '공평무사', '준칙', '정의', '투명성'은 중심적 특징이다. 그리고 공평 개념이 적용되는 영역과 관련해서는 '정치', '민주주의'가, 공평 개념과 관련된 현상으로는 '차별'이 중심적 특징이다.

반면에 '법치'와 '신뢰'는 보수 집단에서 공정의 중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형평', '부정부패', '사법'은 진보 집단에서 공정의 중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보수 집단에서는 '형평', '부정부패', '사법'이 공정의 주변적 측면으로 평가되었고, 진보 집단에서는 '신뢰'와 '법치'가 공정의 주변적 측면으로 평가되었다(진보 집단에서 '법치'는 최우선 연상어로 2회 선택되었다).

다. 추가 분석: 군집분석을 통한 연상어 유형화

추가적으로 공정성 연상어 목록을 유형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공정성 연상어에 대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성 연상어를 추출한 후 각 개인별로 해당 단어를 몇 번째 응답으로 제시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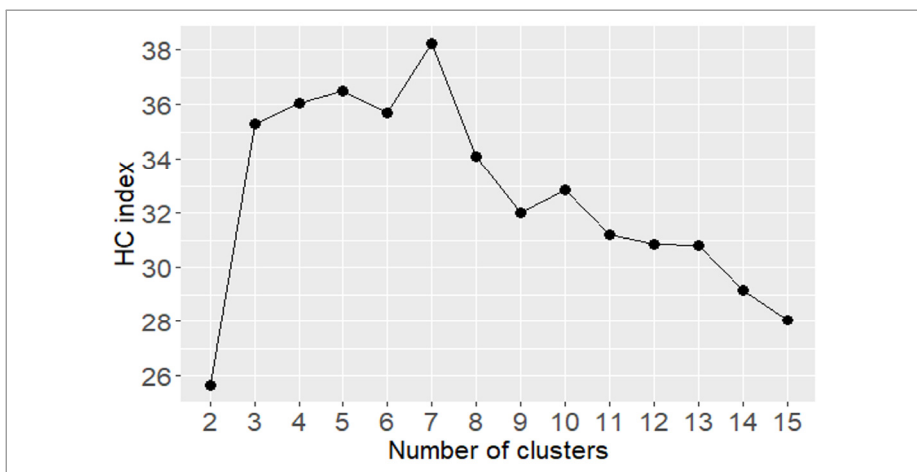
는지를 코딩하였다. 응답에 먼저 제시된 단어일수록 공정성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제시 순서가 더 먼저일수록 더 높은 점수를 갖도록 코딩하였다. 즉, 해당 단어가 첫 번째 응답인 경우 10점, 두 번째 응답인 경우 9점, ... 10번째 응답인 경우 1점, 응답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코딩하였다.

둘째, 이러한 코딩에 기반하여 각 행이 개인을, 각 열이 응답에 포함된 개별 단어를 나타내도록 자료 행렬을 생성하였고, 이 자료 행렬을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에 투입하였다. 군집분석은 계층적 군집화(hierarchical cluster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계층적 군집화는 응집형(agglomerative)과 분리형(divisive) 방식 중 응집형 방식을 사용하였다. 응집형 방식이란, 개개인을 하나하나의 개별 군집으로 보기 시작하여, 군집 간 유사성에 기반하여 가장 유사한 군집들을 하나로 병합하면서 순차적으로 상위 군집을 구성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때, 군집 간 유사성은 군집 간 거리(distance)에 기반하여 측정하는데, 다양한 거리 계산 방식 중 최장 연결법(complete linkage)을 사용하였다. 최장 연결법은 두 군집에 속한 개인들 중 가장 거리가 먼(즉, 가장 유사성이 낮은) 개인들 간의 거리로 군집 간 거리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두 개인 간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셋째, 최적의 군집 수는 CH index (Calinski & Harabasz, 1974)에 기반하여 결정하였다. CH index 값이 클수록 군집이 서로 잘 구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4-1-5] 군집 수에 따른 HC Index



군집분석을 위해 R을 사용했고, CH index 및 최적 군집 수는 NcClust 패키지를 사용하여 구했고, 계층적 군집화는 mclust 패키지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에 사용한 공정성 연상어는 총 214개였다. 군집의 수를 2개에서 15개까지 변화시키면서 HC index 값을 살펴본 결과, 아래 그래프와 같이 군집의 수가 7개일 때 HC index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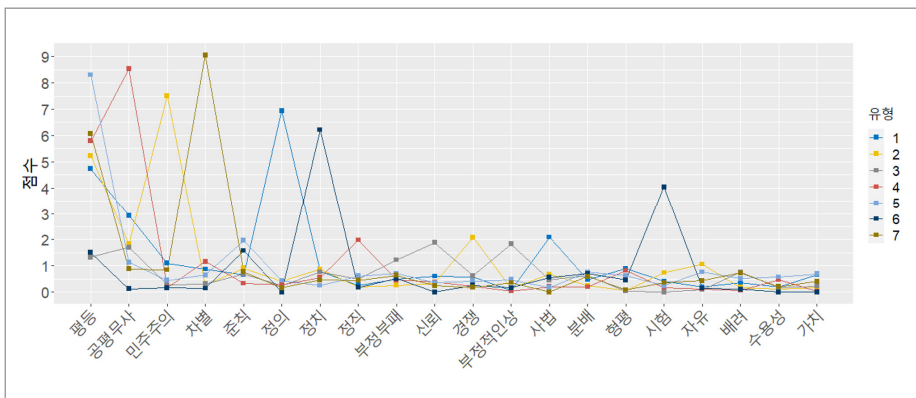
HC index에 기반하여 최적의 군집의 수를 7개로 설정하고, 계층적 군집화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1,115명의 응답자 중 네 번째 군집에 속한 응답자가 345명(31%)으로 가장 많았고, 여섯 번째 군집에 속한 응답자는 57명(5%)으로 가장 적었다.

▶▶ [표 4-1-18] 군집 유형별 빈도

유형	1	2	3	4	5	6	7
빈도	139	122	145	240	345	57	67
비율	0.12	0.11	0.13	0.22	0.31	0.05	0.06

응답 프로파일 유형을 구하기 위해 7개 군집 각각에 속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연상어별 응답 평균을 계산하였다. 각 군집별 공정성 연상어 프로파일 유형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응답 빈도가 가장 높은 연상어 20개에 대해서 그래프를 제시하였다).

▶▶ [그림 4-1-6] 연상어 프로파일



유형 1: 네 번째로 많은 응답자(139명, 12%)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정의’, ‘평등’, ‘**사법**’ 등을 제시함.

유형 2: 다섯 번째로 많은 응답자(122명, 11%)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민주주의’, ‘평등’, ‘**경쟁**’ 등을 제시함.

유형 3: 세 번째로 많은 응답자(125명, 13%)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부정부패’, ‘신뢰’, ‘부정적 인상’ 등을 제시함.

유형 4: 두 번째로 많은 응답자(240명, 22%)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평등’, ‘공평무사’, ‘정직’ 등을 제시함.

유형 5: 가장 많은 응답자(345명, 31%)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평등’, ‘준칙’ 등을 제시함.

유형 6: 가장 적은 응답자(57명, 5%)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정치’, ‘시험’ 등을 제시함.

유형 7: 두 번째로 적은 응답자(67명, 6%)가 속한 유형으로, 공정성 연상어로 주로 ‘평등’, ‘차별’ 등을 제시함.

서로 다른 공정성 연상어 응답 유형 간에 개인차 변인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상어 응답 유형(7개)을 독립변수로, 다음 개인차 변인을 종속변수로 하여 독립집단 ANOVA를 실시하였다. 분석은 R을 사용해서 수행하였고, ANOVA는 stats 패키지의 aov() 함수를 사용하여, ANOVA 사후분석은 stats 패키지의 TukeyHSD() 함수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 인구사회적 변인
정치 성향, 연령대, 최종학력, 직업 및 전공의 법 관련성,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수준
- 공정성 지각(5점 척도)
- 부당한 세상 인식 척도(Unjust Views Scale; UJVS)(7점 척도)
- 절차 및 분배적으로 정당한 세상 신념 척도(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7점 척도)
- 도덕적 기반 질문지(Moral Foundations Questionnaires)(6점 척도)
- 정의민감성(Justice Sensitivity)(7점 척도)

▶▶▶ [표 4-1-19] 정치성향 집단 간 불공정·공정 세상 신념 및 정의감수성 비교 t검정 결과

변인	dfn	dfd	fratio	p	유형1 평균	유형2 평균	유형3 평균	유형4 평균	유형5 평균	유형6 평균	유형7 평균
공정성 지각	6	1,108	2.97	0.0071	2.35	2.49	2.13	2.38	2.38	2.28	2.15
부당한 세상 인식	6	1,108	1.22	0.2914	4.44	4.47	4.47	4.62	4.51	4.46	4.66
일반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6	1,108	1.17	0.3198	4.11	4.22	4.06	4.2	4.2	4.41	4.13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	6	1,108	2.3	0.0328	3.71	3.86	3.58	3.79	3.77	3.92	3.39
개인적인 분배적 정의 신념	6	1,108	1.99	0.0645	4.79	4.76	4.55	4.74	4.74	4.89	4.5
개인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	6	1,108	1.37	0.2255	4.75	4.57	4.57	4.64	4.62	4.75	4.4
도덕기반_위해	6	1,108	2.75	0.0119	4.54	4.3	4.29	4.4	4.42	4.23	4.42
도덕기반_공정성	6	1,108	2.37	0.0277	4.37	4.14	4.19	4.3	4.28	4.12	4.34
도덕기반_내집단	6	1,108	0.11	0.9948	3.86	3.83	3.87	3.88	3.86	3.87	3.89
도덕기반_권위	6	1,108	0.39	0.8881	3.81	3.78	3.83	3.85	3.87	3.83	3.87
도덕기반_순수	6	1,108	0.44	0.8535	4	3.92	3.93	3.96	3.97	3.84	3.96
도덕기반_자유(경제)	6	1,108	1.58	0.1481	3.77	3.83	3.76	3.88	3.81	3.86	3.7
도덕기반_자유(라이프 스타일)	6	1,108	3.84	0.0009	4.29	4.19	4.11	4.41	4.38	4.26	4.13
피해자 정의민감성	6	1,108	0.27	0.9496	3.97	3.87	4.02	4.03	3.95	3.95	4.05
관찰자 정의민감성	6	1,108	1.44	0.1952	4.18	3.94	4.12	4.3	4.16	4.39	4.25
수혜자 정의민감성	6	1,108	0.87	0.5149	3.73	3.48	3.52	3.54	3.46	3.54	3.64
가해자 정의민감성	6	1,108	3.26	0.0035	5.4	4.93	4.75	5.1	5	5.11	5.19
정치 성향	6	1,108	1.79	0.0973	2.43	2.43	2.46	2.44	2.47	2.25	2.7
연령	6	1,108	3.35	0.0028	4.27	3.77	4.22	3.9	3.85	4.32	4.03
최종학력	6	1,108	3.48	0.002	2.04	1.84	1.88	1.8	1.94	1.96	1.9
직업 및 전공 법 관련성	6	1,108	1.44	0.1956	2.75	2.81	2.72	2.82	2.78	2.63	2.78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6	1,108	2.85	0.0093	3.28	3.34	3.35	3.41	3.26	3.21	3.61

독립집단 ANOVA 결과, 공정성 지각(fj_esti)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2.97, p = .0071$).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3이 유형 2에 비해 공정성 지각이 유의하게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95$).

독립집단 ANOVA 결과,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2.30, p = .0328$).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형 7이 유형 2에 비해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이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718$).

독립집단 ANOVA 결과, 도덕기반 중 <위해(Harm/Care)>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2.75, p = .0119$).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3이 유형 1에 비해 <위해(Harm/Care)>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p = .0308$), 유형 6이 유형 1에 비해 점수가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93$).

독립집단 ANOVA 결과, 도덕기반 중 <공정성(Fairness/Reciprocity)>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2.37, p = .0277$).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형 2가 유형 1에 비해 <공정성(Fairness/Reciprocity)> 점수가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908$).

독립집단 ANOVA 결과, 도덕기반 중 <경제적 자유(Econ/Government Liberty)>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3.84, p = .0009$).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3이 유형 4, 5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경제적 자유(Econ/Government Liberty)> 점수를 나타냈다(유형 4와 비교: $p = .0046$, 유형 5와 비교: $p = .0082$).

독립집단 ANOVA 결과, <가해자 정의민감성>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3.26, p = .0035$).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1이 유형 3, 5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가해자 정의민감성> 점수를 나타냈다(유형 3과 비교: $p = .0008$, 유형 5와 비교: $p = .453$). 또한, 유형 1이 유형 2에 비해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높은 <가해자 정의민감성> 점수를 나타냈다($p = .0737$).

독립집단 ANOVA 결과, <연령>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3.35, p = .0028$).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1이 유형 5에 비해 유의하게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연령>이 높게 나타났다($p = .0412$). 또한, 유형 1이 유형 2에 비해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연령>이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높게 나타났다($p = .0614$).

독립집단 ANOVA 결과, <학력>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3.48, p = .0020$).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4는 유형 1과 5에 비해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학력>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유형 1과 비교: $p = .0014$, 유형 5와 비교: $p = .0360$). 유형 2는 유형 1에 비해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학력>이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낮게 나타났다($p = .0505$).

독립집단 ANOVA 결과, <경제적 여유>에서 유형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6, 1108) = 2.85, p = .0093$).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유형 7이 유형 5에 비해 해당 유형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제적 여유>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 = .0088$), 유형 1과 6에 비해서는 유형 7에 속하는 응답자의 <경제적 여유>가 거의 유의하게(marginally significant) 낮게 나타났다(유형 1과 비교: $p = .0519$, 유형 6과 비교: $p = .0520$).

위의 결과를 대략 정리하면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유형 1('정의', '평등', '사법')

- 유형 1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연령과 학력이 높고, 도덕적 판단에 있어 '위해(Harm/Care)'와 '공정성(Fairness/Reciprocity)'을 중요하게 고려하며, 가해자 정의민감성이 높은 경향이 있음

유형 3('부정부패', '신뢰', '부정적 인상')

- 유형 3에 속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덜 공정하다고 지각하고, 도덕적 판단시 경제적 자유(Econ/Government Liberty)를 덜 중요하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

유형 4('평등', '공평무사', '정직')

- 유형 4에 속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경향이 있음

유형 7('평등', '차별')

- 유형 7에 속하는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일반적인 절차적 정의 신념이 낮은 경향이 있음

제2절 | 연상어 관련성 조사

1. 조사방법

조사대상

본 연구를 위해서 온라인 리서치 회사에 의뢰하여 전국 성인 남녀 1,072명(남 559명, 여 513명, 95% 신뢰수준, 표준오차 $\pm 2.2\%$)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2023. 11. 14. ~ 11. 28.)를 실시하였다.

조사도구

공정성 연상어 관련성 및 공정성 평가

본 연구는 경험 자료에 기반하여 '공정성'에 대해 일반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표상의 차등 구조(graded structure)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상어 조사' 결과에서 도출한 41개 연상어가 각각 '공정'과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공정'이라는 개념의 중심적 특징과 주변적 특징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 다음은 제시된 단어가 '공정'과 얼마나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각 단어와 그에 대한 예시를 읽고 각 단어가 '공정'과 얼마나 관련된 것인지 1~9점으로 답해주시시오. 각 예시는 사람들이 각 단어에 대해서 떠올리는 대표적인 말입니다.

연상어 예시 취업(취업,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5점 척도)
- 귀하가 앞 문항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 라고 응답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별, 연령대, 최종학력, 종교, 정치 성향, 직업 및 전공의 법 관련성, 가구소득 및 경제적 여유 수준, 거주 지역을 측정하였다. 여기에서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보수-중도보수-중도진보-진보'(4점 척도)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2. ‘공정’ 표상의 차등 구조

가. 전체 응답 분석

1) 연구문제

공정성 표상은 어떠한 차등 구조를 나타내는가? 즉, 공정성 표상에서 중심성이 높은 연상어는 무엇이고, 중심성이 낮은 연상어는 무엇인가?

2) 분석 방법

전체 응답자(총 1,072명) 자료에 기반하여, 41개 공정성 연상어 각각에 대한 관련성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관련성이 가장 높은 연상어부터 가장 낮은 연상어까지 순위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R을 사용해서 수행하였고, 기술 통계는 psych 패키지의 describe() 함수를 사용하여 구했다.

3) 분석 결과

통상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방법에 따라 연상어 관련성의 중간값(6.30)을 기준으로 중심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와 주변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다시 말해, 관련성 평정치가 높을수록 ‘공정’과 관련성이 높은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표 4-2-1>과 <표 4-2-2>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중심 특징과 주변 특징 간의 관련성 평정치의 차이가 작기 때문에 중간값 분할이 중심 특징과 주변 특징을 엄격하게 분류하는 것은 아니다.

» [표 4-2-1] 공정성의 중심 특징 연상어 빈도 및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연상어	중심 특징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응답 예시			
투명성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	54	6.89	2.03
준법	준법, 규칙준수, 반칙 없음	24	6.87	1.96
형평	형평성, 균형성	78	6.83	1.92
준칙	규칙, 법령, 원칙	174	6.81	2.37
평등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915	6.78	1.88
시험	시험, 수능, 공무원 시험	72	6.76	2.01

중심 특징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연상어	응답 예시			
정의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	153	6.75	2.47
정직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	119	6.74	1.92
법치	법치주의, 법집행, 법질서	21	6.73	2.75
공평무사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	504	6.68	1.84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	197	6.66	1.99
객관성	객관성,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21	6.61	2.24
도덕	도덕, 윤리	23	6.57	2.00
신뢰	신뢰, 안정감	104	6.56	1.86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49	6.55	1.89
타당성	타당성, 합당성	22	6.50	1.86
사법	법원, 재판, 형량	90	6.47	1.89
합리성	합리성, 이성적	26	6.42	1.71
분배	소득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노력에 대한 정당 보상	88	6.40	1.78
권리	권리, 당연한 권리, 동등한 권리	37	6.39	1.92
경쟁	경쟁, 동일 조건, 페어플레이	91	6.30	1.99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공정성과의 관련성이 가장 높은 연상어는 투명성, 준법, 형평, 준칙, 평등, 시험, 정의, 정직, 법치, 공평무사 순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표 4-1-12>에서 저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준법, 법치, 객관성, 도덕, 공공성, 타당성, 합리성, 권리가 중심 특징으로 평가되었다.

» [표 4-2-2] 공정성의 주변 특징 연상어 빈도 및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주변 특징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연상어	응답 예시			
수용성	납득할 수 있음, 동의할 수 있음, 상호만족	62	6.29	1.83
가치	가치, 목표, 사회가 나아갈 방향	60	6.26	1.94
교육	교육, 교육수준, 교육기회	30	6.18	1.99
취업	취업,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53	6.17	2.36
자유	자유, 자율성	67	6.07	1.90
차별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177	6.06	1.99
수사	수사, 검찰, 경찰	39	6.05	2.26
다수결	다수결, 다수의 인정, 다수의 이익	47	6.04	2.55

연상어	주변 특징	연상어 빈도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응답 예시			
배려	약자배려, 특수한 사정 고려, 공존	66	6.03	1.94
상식	상식,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33	6.00	2.68
시장경제	시장경제, 공정거래, 공정가격	41	5.98	1.85
평화	평화, 화평	28	5.86	2.00
능력주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차등, 재능발휘	35	5.73	2.60
부정부패	비리, 반부패, 청렴	114	5.65	1.92
과제	과제, 도전, 희망사항	30	5.61	1.75
정치	정치, 대통령, 정치인	133	5.56	1.95
빈부격차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 소득격차 해소	35	5.29	1.85
신분차	대물림, 출신배경, 계급차	29	4.65	1.75
강자우위	특권, 기득권, 카르텔	30	4.52	1.79
연고주의	연고주의, 학연, 지연	34	4.46	2.08

관성성이 가장 낮은 연상어는 연고주의, 강자우위, 신분차, 빈부격차, 정치, 과제, 부정부패, 능력주의, 평화, 시장경제 순으로 나타났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표 4-1-12>에서 고빈도 연상어로 분류되었던 차별, 정치, 부정부패, 자유, 수용성, 가치가 주변 특징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투명성, 형평, 준칙, 평등, 정의, 정직, 공평무사, 민주주의, 신뢰, 사법, 분배, 경쟁이 고빈도 연상어였으며 동시에 중심 특징으로 분류되었다.

나. 보수/진보 응답 비교

1) 연구문제

보수/진보 성향에 따라 공정성 표상의 차등 구조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가?

2) 분석 방법

응답자를 보수(551명)와 진보(521명) 집단으로 구분한 뒤, 각 집단 별로 41개 공정성 연상어 각각에 대한 관련성 평정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고, 평균을 기준으로 가장 중심성이 높은 특질부터 가장 낮은 특질까지 순위를 살펴보았다. 분석은 R을 사용해서 수행하였고, 기술통계는 psych 패키지의 describe() 함수를 사용하여 구했다.

3) 분석 결과

통상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방법에 따라 자신의 정치 성향을 보수(보수+중도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상어 관련성 평정치 중간값(6.24)을 기준으로 중심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와 주변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보수 집단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연상어는 투명성, 준법, 형평, 법치, 준칙, 시험, 평등, 정의, 정직, 공평무사 순으로 나타났고, 관련성이 가장 낮은 연상어는 연고주의, 강자우위, 신분차, 빈부격차, 과제, 정치, 부정부패, 평화, 능력주의, 배려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2-3] 보수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24)

연상어	중심 특징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예시		
투명성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	6.85	1.90
준법	준법, 규칙준수, 반칙 없음	6.85	1.90
형평	형평성, 균형성	6.76	1.84
법치	법치주의, 법집행, 법질서	6.74	2.02
준칙	규칙, 법령, 원칙	6.74	1.86
시험	시험, 수능, 공무원 시험	6.67	1.92
평등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6.65	2.06
정의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	6.65	1.99
정직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	6.64	1.96
공평무사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	6.61	1.92
신뢰	신뢰, 안정감	6.57	1.79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	6.55	1.85
객관성	객관성,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6.53	1.81
도덕	도덕, 윤리	6.50	1.88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6.47	1.76
사법	법원, 재판, 형량	6.46	2.16
타당성	타당성, 합당성	6.45	1.76
합리성	합리성, 이성적	6.41	1.75
경쟁	경쟁, 동일 조건, 페어플레이	6.34	1.96
권리	권리, 당연한 권리, 동등한 권리	6.28	1.87
수용성	납득할 수 있음, 동의할 수 있음, 상호만족	6.24	1.71
가치	가치, 목표, 사회가 나아갈 방향	6.24	1.78

» [표 4-2-4] 보수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24)

주변 특징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연상어	예시		
분배	소득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노력에 대한 정당 보상	6.21	1.96
수사	수사, 검찰, 경찰	6.15	2.17
교육	교육, 교육수준, 교육기회	6.13	1.92
취업	취업,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6.11	1.94
자유	자유, 자율성	6.10	1.84
시장경제	시장경제, 공정거래, 공정가격	6.02	1.96
다수결	다수결, 다수의 인정, 다수의 이익	5.97	1.88
상식	상식,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5.97	1.93
차별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5.94	2.33
배려	약자배려, 특수한 사정 고려, 공존	5.93	1.86
능력주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차등, 재능발휘	5.84	2.02
평화	평화, 화평	5.74	1.95
부정부패	비리, 반부패, 청렴	5.64	2.67
정치	정치, 대통령, 정치인	5.61	2.33
과제	과제, 도전, 희망사항	5.60	1.83
빈부격차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 소득격차 해소	5.23	2.16
신분차	대물림, 출신배경, 계급차	4.72	2.50
강자우위	특권, 기득권, 카르텔	4.59	2.58
연고주의	연고주의, 학연, 지연	4.54	2.47

자신의 정치 성향을 진보(진보+중도 진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연상어 관련성 평정지 중간값(6.35)을 기준으로 중심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와 주변 특징에 해당하는 연상어를 구분하였다.

진보 집단 응답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관련성이 가장 높은 연상어는 투명성, 평등, 형평, 준법, 준칙, 준칙, 시험, 정의, 정직, 민주주의, 공평무사 순으로 나타났다.

» [표 4-2-5] 진보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35)

연상어	중심 특징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예시		
투명성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	6.93	1.94
준법	준법, 규칙준수, 반칙 없음	6.91	1.99
형평	형평성, 균형성	6.90	1.88
법치	법치주의, 법집행, 법질서	6.89	2.00
준칙	규칙, 법령, 원칙	6.88	1.90
시험	시험, 수능, 공무원 시험	6.85	1.84
평등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6.85	2.02
정의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	6.84	1.87
정직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	6.77	1.98
공평무사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	6.75	2.01
신뢰	신뢰, 안정감	6.71	2.15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	6.70	1.77
객관성	객관성,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6.64	1.91
도덕	도덕, 윤리	6.64	1.82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6.60	2.02
사법	법원, 재판, 형량	6.56	1.88
타당성	타당성, 합당성	6.55	1.74
합리성	합리성, 이성적	6.51	1.91
경쟁	경쟁, 동일 조건, 페어플레이	6.48	2.31
권리	권리, 당연한 권리, 동등한 권리	6.44	1.75
수용성	납득할 수 있음, 동의할 수 있음, 상호만족	6.35	1.71

중심성이 가장 낮은 연상어는 연고주의, 강자우위, 신분차, 빈부격차, 정치, 능력주의, 과제, 부정부패, 시장경제, 수사로 나타났다.

» [표 4-2-6] 진보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1=전혀 관련 없음, 9=전적으로 관련 있음)(관련성 평가 점수순, 중간값=6.35)

연상어	주변 특징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예시		
가치	가치, 목표, 사회가 나아갈 방향	6.28	1.78
분배	소득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노력에 대한 정당 보상	6.27	2.02
수사	수사, 검찰, 경찰	6.23	2.11
교육	교육, 교육수준, 교육기회	6.23	2.08

주변 특징		관련성 평균	관련성 표준편차
연상어	예시		
취업	취업,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6.18	2.41
자유	자유, 자율성	6.13	1.92
시장경제	시장경제, 공정거래, 공정가격	6.11	1.99
다수결	다수결, 다수의 인정, 다수의 이익	6.04	1.88
상식	상식,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6.03	1.94
차별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5.98	1.87
배려	약자배려, 특수한 사정 고려, 공존	5.95	2.54
능력주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차등, 재능발휘	5.94	2.02
평화	평화, 화평	5.65	2.84
부정부패	비리, 반부패, 청렴	5.62	1.87
정치	정치, 대통령, 정치인	5.61	1.95
과제	과제, 도전, 희망사항	5.50	2.61
빈부격차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 소득격차 해소	5.35	2.36
신분차	대물림, 출신배경, 계급차	4.57	2.7
강자우위	특권, 기득권, 카르텔	4.43	2.79
연고주의	연고주의, 학연, 지연	4.37	2.64

전체 연상어의 관련성 평정치를 순위를 기준으로 보수/진보 집단 별 연상어의 관련성 평정치 순위를 비교한 결과는 <표 4-2-7>, <표 4-2-8>과 같다.

» [표 4-2-7] 보수/진보 집단의 공정성 중심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 순위 비교

중심 특징		전체 순위	보수집단 순위	진보집단 순위
연상어	응답 예시			
투명성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	1	1	1
준법	준법, 규칙준수, 반칙 없음	2	2	4
형평	형평성, 균형성	3	3	3
준칙	규칙, 법령, 원칙	4	5	5
평등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	5	7	2
시험	시험, 수능, 공무원 시험	6	6	6
정의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	7	8	7
정직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	8	9	8
법치	법치주의, 법집행, 법질서	9	4	11
공평무사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	10	10	10
민주주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	11	12	9

중심 특징		전체 순위	보수집단 순위	진보집단 순위
연상어	응답 예시			
객관성	객관성,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12	13	12
도덕	도덕, 윤리	13	14	14
신뢰	신뢰, 안정감	14	11	16
공공성	공공성, 공익성, 공동체성	15	15	13
타당성	타당성, 합당성	16	17	17
사법	법원, 재판, 형량	17	16	19
합리성	합리성, 이성적	18	18	20
분배	소득분배, 동일노동 동일임금, 성과/노력에 대한 정당 보상	19	23	15
권리	권리, 당연한 권리, 동등한 권리	20	20	18
경쟁	경쟁, 동일 조건, 페어플레이	21	19	23

» [표 4-2-8] 보수/진보 집단의 공정성 주변 특징 연상어 관련성 평가 순위 비교

주변 특징		전체 순위	보수집단 순위	진보집단 순위
연상어	응답 예시			
수용성	납득할 수 있음, 동의할 수 있음, 상호만족	22	21	21
가치	가치, 목표, 사회가 나아갈 방향	23	22	22
교육	교육, 교육수준, 교육기회	24	25	25
취업	취업, 일자리, 블라인드 채용	25	26	24
자유	자유, 자율성	26	27	29
차별	차별, 성차별, 인종차별	27	31	26
수사	수사, 검찰, 경찰	28	24	32
다수결	다수결, 다수의 인정, 다수의 이익	29	29	28
배려	약자배려, 특수한 사정 고려, 공존	30	32	27
상식	상식, 기본적인 것, 당연한 것	31	30	30
시장경제	시장경제, 공정거래, 공정가격	32	28	33
평화	평화, 화평	33	34	31
능력주의	능력주의, 능력에 따른 차등, 재능발휘	34	33	36
부정부패	비리, 반부패, 청렴	35	35	34
과제	과제, 도전, 희망사항	36	37	35
정치	정치, 대통령, 정치인	37	36	37
빈부격차	빈부격차, 빈익빈부익부, 소득격차 해소	38	38	38
신분차	대물림, 출신배경, 계급차	39	39	39
강자우위	특권, 기득권, 카르텔	40	40	40
연고주의	연고주의, 학연, 지연	41	41	41

대체적으로 순위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래 연상어의 경우 순위가 5단계 이상 차이를 보였다.

평등: 보수(7위), 진보(2위)
법치: 보수(4위), 진보(11위)
신뢰: 보수(11위), 진보(16위)
차별: 보수(31위), 진보(26위)
분배: 보수(23위), 진보(15위)
배려: 보수(32위), 진보(27위)
시장경제: 보수(28위), 진보(33위)
수사: 보수(24위), 진보(32위)

정리하면, 보수 집단의 경우 진보 집단에 비해 신뢰, 시장경제, 수사, 법치의 관련성 순위가 더 높았고, 진보 집단은 보수 집단에 비해 평등, 차별, 분배, 배려의 관련성 순위가 더 높았다. 다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니며, 표본에서 나타난 차이를 기술한 것이므로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제 5 장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결론

강 태 경

지금까지 ‘공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일상적 언어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 ‘공정’의 프로토타입 분석을 수행했다. ‘공정’이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기에 이 조사는 중요하다. ‘공정’에 대한 기존 이론이나 선행 연구에 구속되지 않고, 일반 시민이 생각하는 ‘공정’에 관한 특징으로부터 공정의 정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완전히 데이터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 방식인 프로토타입 분석을 수행했다. 일반인의 응답에서 공정의 42가지 특징을 구별하고, 이 중 중요도 평가를 기준으로 20개의 핵심 특징을 선별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공정’의 핵심 특징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제1절 |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

이 절에서는 프로토타입 분석을 통해 얻은 ‘공정’의 핵심적 특징을 토대로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프로토타입 분석에서 확인된 특징을 ‘공정’ 관련 이론과 경험적 연구에서 확인된 특징과 비교한다.

1. 핵심적 특징

첫째, ‘평등’(예: ‘평등’, ‘기회평등’, ‘법 앞의 평등’)은 ‘공정(公正)’의 어원 분석(제2장 제1절)과 공정의 독자적 의미에 관한 철학적 분석(제2장 제2절)뿐만 아니라, 프로토

타입 분석에서도 공정의 가장 핵심적 특징으로 확인되는 특징 중 하나이다. 공정성 연상어 중에서 '평등'은 가장 자주 언급되었으며,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근거로도 '평등'과 관련된 이유를 자주 제시하였다('기회 불균등', '기회 균등', '사법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 '자의적 사법권력' 등). 그러나 '평등'은 '공정'과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은 기회의 평등을 포함하지만, 결과의 평등을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쟁 등에서의 조건의 평등은 공정성이 평가되는 영역에 따라 공정과 중첩되기도 하고 구별되기도 한다.

둘째, '공평무사'(예: '공명정대', '중립성', '비편파성')와 '준칙'(예: '규칙', '법령', '원칙')은 '공정'의 중요한 특징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핵심적 특징은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우선 '공평무사'가 '공정'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은 '공정(公正)'의 어원 분석(제2장 제1절)과 공정의 독자적 의미에 관한 철학적 분석(제2장 제2절)에서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사적 선호를 배제한 태도인 공평무사는 특정한 대상을 대우하거나 그 대상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을 내리기 위해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태도라는 점에서 '준칙'은 공평무사와 논리적인 관계를 가진다. 또한 특정한 대상에 대한 대우나 판단 등에 있어 '준칙'을 '공평무사'하게 적용하지 않고 편견이나 사적 선호 등에 따라 적용한다면 그 결과는 '차별'이 될 것이다. 따라서 공정성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인 '차별'도 공정의 핵심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정직'(예: '정직', '거짓 없음', '꼼수 없음')과 '투명성'(예: '투명성', '정보공개', '경영공개')은 프로토타입 분석에서 '공정'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적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정직'은 개인에게 요구되는 덕목이고, '투명성'은 조직이나 기관 등에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덕목은 '거짓 없음'이라는 요소를 공유한다. 공정과 관련하여 '거짓 없음'이란, 모두에게 기회를 평등하게 주었는지 그리고 준칙을 공평무사하게 적용하였는지(또는 준수하였는지)와 관련된 진실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진실성을 공정의 핵심적 특징으로 보는 일반인들의 관점은 '공정'을 '믿음'의 근거인 '공(公)'의 확대로 보는 동아시아적 지적 전통과 통한다.

넷째, '민주주의'(예: '민주주의', '선거제도', '반독재')도 '공정'의 핵심적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민주주의'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 독재를 방지하

고 대표를 통해 민의를 정치에 반영하는 정치 제도라는 점에서 ‘평등’뿐만 아니라 ‘투명성’과 의미적인 관련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공정성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젊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 제고와 공고화에 기여한다.¹¹⁸⁾ 특히, 정책적 결정의 이유와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이른바 ‘사후 공정성’, 즉 투명성에 대한 인식은 민주주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진다.¹¹⁹⁾

마지막으로, ‘정의(正義)’(예: ‘정의’, ‘의로움’, ‘부조리 없음’)는 프로토타입 분석에서 ‘공정’의 또 다른 중요한 핵심적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정의에 해당하는 응답 예시를 살펴보면, 응답자들이 말하는 ‘정의’는 교정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등과 같은 학술적이고 구체적인 정의 개념과 관련 있다기보다는 어떤 행위나 상태가 정당하다는 긍정적 평가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정의’는 ‘공정’한 행위나 상태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2. 공정에 관한 잠정적 정의

프로토타입 분석을 통해 추출한 공정의 핵심적 특성을 토대로 ‘공정’을 ‘기회의 평등’, ‘준칙 적용에서의 공평무사와 정직한 태도’, ‘투명한 정치제도’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잠정적 정의는 몇 가지 장점을 가진다.

첫째, 이 정의는 일반인이 인식하는 중요도에 따라(중심성) 확인된 공정의 가장 전형적이고 핵심적인 특징을 토대로 한다. 하향식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주요 개념을 정의하기 일쑤다. 반면에 프로토타입 분석과 같이 완전히 데이터에 기초한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하는 경우 특정 개념의 일상적인 활용에 근접한 정의를 도출할 수 있다.

118) J. Linde and Gissur Ó. Erlingsson, "The Eroding Effect of Corruption on System Support in Swede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6(4) (2013), pp.585-603; 신상준·이숙중,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2016), 1-37면.

119) 강우진,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지지", 『한국과 국제정치』 33(3) (2017), 33면.

둘째, 이 정의는 공정이 개인적 차원, 관계적 차원, 정치적 차원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공정은 개인적 차원에서 자기실현, 사회적 차원에서 차별 없는 대우, 정치적 차원에서 공적 신뢰라는 긍정적 결과에 기여한다.

셋째, 이 정의는 공정을 ‘평등’, ‘공평’, ‘정의’ 등과 구분할 수 있는 다양한 측면을 담고 있다. ‘기회의 평등’은 공정이 기본적으로 결과의 평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준칙 적용에서의 공평무사’는 법 앞의 평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공평무사한 태도가 적용되는 영역이 준칙의 적용이라는 점에서 준칙의 목적을 고려해야 함을 전제한다. 이는 제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을 조건의 평등, 즉 기계적 공평이 아닌 합목적적인 공평으로 보는 철학적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넷째, ‘정직한 정치인과 투명한 정치제도’는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와 이 토대 위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한 신뢰의 근거가 공정성임을 보여준다. 믿을 수 있는 정부란 정의로운 정부라 부를 수 있다는 점에서 공정성은 정의의 필요조건이 된다. 물론 공정한 정부가 언제나 정의로운 정부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제2절 | 한계점 및 제언

이 연구는 사람들이 ‘공정’에 대해 이야기할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지에 대한 경험적인 통찰을 제공한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이 연구는 표준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방법에 포함되는 접근가능성 및 대표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 접근가능성 검증은 회상 과제나 분류 과제를 통해서 사람들이 ‘공정’의 핵심적 특징을 주변적 특징보다 더 잘 회상하고 더 빠르게 분류하는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표성 검증은 사람들이 ‘공정’과 관련된 경험에서 핵심적 특징을 주변적 특징보다 더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하는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연구는 자유연상 과제를 통해 공정성 연상어 목록을 만들고, 각 연상어의 중요도 평정 결과에 따라 중심적 특징과 주변적 특징을 구별하는 데 멈췄다. 이러한 한계점은

통상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연구에 참여하는 응답자수보다 보다 약 5배 이상 많은 수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데에 일정 부분 기인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생성한 ‘공정’ 연상어 목록에 대한 접근가능성 검증 및 대표성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한국인 표본만 사용하였다. 통상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연구에서도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인구 집단에서 참가자를 추출한다. 동일한 인구 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는 일관성을 확보하기 쉽다. 그런데 ‘공정’과 같은 가치 개념은 문화권에 따라 그 구체적 의미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더욱이 ‘공정’은 사회적, 법적 제도와 관련이 깊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국가가 어떤 정치적 방향성(예: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도 국가마다 ‘공정’의 구체적인 의미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산업화된 도시와 아프리카의 목축업 사회에서는 분배적 정의의 기준이 서로 다르다.¹²⁰⁾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의 결과가 다른 인구 집단에서 재현되는지 검증해야 한다.

셋째, 이 연구는 응답자가 자기 보고한 정치성향에 따라 ‘공정’ 관련 특징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통상적인 프로토타입 분석 연구에서는 응답자를 사회인구적 변인에 따라 나누지 않는다. 그런데 ‘공정’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구체적인 의미 내용을 다르게 이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정치적 성향의 정권에서 저마다 ‘공정’을 국정기조로 내세우고 너무나도 다른 방향이 정책을 수립·수행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공정 연상어 목록이 차이가 나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법치’와 ‘신뢰’는 보수 집단에서 공정의 중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였고, ‘형평’, ‘부정부패’, ‘사법’은 진보 집단에서 공정의 중심적 측면과 관련이 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집단 변수로 사용한 정치성향이 응답자의 자기 보고에 기초한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 보고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응답자의 실질적 정치성향을 평가하여 분석에 활용하면 좋겠다.

120) M. Schäfer, D. B. M. Haun, & M. Tomasello, "Fair is not fair everywhere", 『Psychological science』 26(8) (2015), pp.1252-1260.

1. 국내문헌

1) 단행본

- 고사가 시로(지음)·야규 마코토·최재목·이광래(옮김). 『근대라는 아포리아』. 이학사, 2007.
- 남기업. 『공정국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모델-』. 개마고원, 2010.
- 박경귀. 『공정이 먼저다 -흔들리는 대한민국 박경귀가 답하다-』. 가나북스, 2019.
- 박지향. 『평등을 넘어 공정으로-역사를 통해 배우는 성공한 국가의 조건-』. 김영사, 2021.
- 상상시퀀스. 『공정의 함정』. 좋은땅, 2021.
- 선우현. 『평등』. 책세상, 2012.
- 성균관대학교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 『儒學原論』.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78.
- 유종해·김택.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10.
- 이기동(역해). 『論語講說』.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92.
- 이상직. 『公正』. 비타베아타, 2019.
- 이종수. 『정부는 공정한가』. 대영문화사, 2012.
- 장은주. 『공정의 배신 -능력주의에 갇힌 한국의 공정-』. 피어나, 2021.
- 전경원. 『공정교육론 -경쟁교육은 야만이다-』. 좋은땅, 2021.

2) 논문

- 강우진. “한국 민주주의에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지지”. 『한국과 국제정치』 33(3) (2017): 33-60.
- 강태경. “사회여론에 대한 법관의 인식: 법관 대상 FGI에 대한 근거이론 분석과 토픽 모델링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법』 13(1) (2022): 23-52.
- 구연상. “공공(公共)의 낱말 뜻 분석”. 『헤겔연구』 (46) (2019): 207-236.

- 김은하·김도연·박한솔, 김수용·김지수.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의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2017): 689-710.
- 김은하·김해빈·김지윤. “한국어판 불공정에 대한 인식 척도의 타당화”. 『인간이해』 42(2) (2021): 101-124.
- 김혜은. “한국과 독일 청소년의 권리와 의무의 이해”. 『한국청소년연구』 18(2) (2007): 213-237.
- 민경환. “社會心理學의 方法論 論爭 : 그 소개 및 韓國의 社會心理學에 던지는 意味”. 『사회과학연구』 8(1) (1986): 159-189.
- 박권일. “한국의 능력주의 인식과 특징”. 『시민과세계』 (38) (2021): 1-39.
- 신상준·이숙종.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부성과 만족도의 매개효과에 대한 다중집단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50(2) (2016): 1-37.
-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15 (1974): 33-81.
- 전성표. “배분적 정의, 과정적 정의 및 인간관계적 정의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들의 공평성 인식과 평등의식”. 『한국사회학』 40(6) (2006): 92-127.
- 정원규. “공정 개념의 철학적 재구성: 정의, 평등, 공평과 구분 가능한 공정의 의미 탐색”. 『윤리학』 11(1) (2022): 1-23.
- 최상진. “사회적 표상이론에 대한 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9(1) (1990): 74-86.

3) 연구보고서

- 신의기·강은영. 『법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 연성진·최병각·기광도. 『준법의식에 대한 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 한국리서치. 『[한국리서치 월간리포트] 여론 속의 여론(2018년 2월)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보고서-』. 한국리서치, 2018.
-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3.
- 황혜신·최성락. 『공정한 사회와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1.

2. 국외문헌

1) 단행본

- Carr, Craig L. 『On Fairness』. Routledge, 2005.
- Charmaz. K. 『Constructing grounded theory』, 2nd. SAGE, 2014.
- Galligan, D. 『Law in Modern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Rawls, Jonh. 『A Theory of Justice』. 출판사, 연도.
- 古田 裕清. 『翻訳語としての日本の法律用語: 原語の背景と欧州的人間観の探求』. 中央大學出版部, 2004.
- 陳弱水. 『公義觀念與中國文化』. 聯經, 2020.

2) 논문

- Atari, M., Graham, J., & Dehghani, M. "Foundations of Morality in Ira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41(5) (2020): 367-384.
- Atari, M., Haidt, J. "Ownership is (likely to be) a moral foundat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46 (2023): e326.
- Baumert, A., Beierlein, C., Schmitt, M., Kemper, C. J., Kovaleva, A., Liebig, S., & Rammstedt, B. "Measuring four perspectives of justice sensitivity with two items each".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6(3) (2014): 380-390.
- Elshout, M., Nelissen, R. M. A., & Van Beest, I. "A prototype analysis of vengeance". 『Personal Relationships』 22 (2015): 502-523.
- Fehr, B. "Prototype analysis of the concepts of love and commit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1988): 557-579.
- Fitness, J., & Fletcher, G. J. "Love, hate, anger, and jealousy in close relationships: A prototype and cognitive apprais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993): 942-958.
- Hepper, E. G., Ritchie, T. D., Sedikides, C., & Wildschut, T. "Odyssey's end: Lay conceptions of nostalgia reflect its original Homeric meaning". 『Emotion』 12 (2012): 102-119.
- Hoppe-Graff, S., & Kim, H.-O. "Understanding Rights and Duties in Different

- Cultures and Contexts: Observations From German and Korean Adolescents”. 『The psychology of rights and duties: Empirical contributions and normative commentaries』 (2005): 49-73.
- Iyer, R., Koleva, S., Graham, J., Ditto, P., & Haidt, J. “Understanding libertarian morality: the psychological dispositions of self-identified libertarians”. 『PloS one』 7(8) (2012): e42366.
- Jollimore, Troy. “Impartiality”(First published Mon Mar 25, 2002; substantive revision Tue Aug 24, 2021).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21).
- Lambert, N. M., Graham, S. M., & Fincham, F. D. “A prototype analysis of gratitude: Varieties of gratitude experienc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5 (2009): 1193-1207.
- Lench, Heather C., & Chang, Esther S. “Belief in an unjust world: when beliefs in a just world fail”.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89(2) (2007): 126-135.
- Linde, J., & Erlingsson, Gissur Ó. “The Eroding Effect of Corruption on System Support in Sweden”. 『Governance: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Administration, and Institutions』 26(4) (2013): 585-603.
- Lucas, T., Alexander, S., Firestone, I., & LeBreton, J. M.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2007): 71-82.
- Luo, S. X., van Horen, F., Millet, K., & Zeelenberg, M. “What we talk about when we talk about hope: A prototype analysis”. 『Emotion』 22(4) (2022): 751-768.
- Schäfer, M., Haun, D. B. M., & Tomasello, M. “Fair is not fair everywhere”. 『Psychological Science』 26(8) (2015): 1252-1260.
- Schmitt, M., Gollwitzer, M., Maes, J., & Arbach, D. “Justice sensitivity”.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ssessment』 21(3) (2005): 202-211.
- Seuntjens, T. G., Zeelenberg, M., Breugelmans, S. M., & van de Ven, N. “Defining gree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06 (2015): 505-525.

3. 기타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홈페이지, “[기획]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요약”

(<https://hrcopinion.co.kr/archives/11697>, 최종접속일 2023. 11. 00.).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선서”. 2017. 5. 10.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정전제(井田制)” 검색([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0%95%EC%A0%84%EC%A0%9C\(%E4%BA%95%E7%94%B0%E5%88%B6\)](http://dh.aks.ac.kr/sillokwiki/index.php/%EC%A0%95%EC%A0%84%EC%A0%9C(%E4%BA%95%E7%94%B0%E5%88%B6))), 최종접속일 2023. 10. 25.).

Moral Foundations Theory(MFT) 홈페이지(<https://moralfoundations.org>, 최종접속일 2023. 10. 25.).

Moral Foundations Theory(MFT) 홈페이지(<https://moralfoundations.org>, 최종접속일 2023. 11. 10.).

Abstract



A prototype for legal fairness in Korean society

Taegyung Gahng·Young-Shin Choi·Ji-Young Kim

Hye-Won Suk·Jae-Mok Choi

This study explores the multifaceted concept of fairness, an extensively debated yet ambiguously defined topic. Adopting a prototype analysis, a bottom-up approach that captures laypeople's perspectives, this research aims to delineate the construct of fairness and examine its relationships with associated constructs. In Study 1, we gathered and analyzed responses from a Korean demographic, generating a list of characteristics indicative of fairness. In Study 2, the characteristics identified in Study 1 were methodically categorized into two distinct groups: central and peripheral features. This categorization was based on their degree of relatedness to the concept of fairness. Our results partially align with previous scholarly definitions of fairness, while also highlighting certain aspects that merit greater attention. Integrating these findings with existing literature, we propose a multifaceted definition of fairness encompassing equality, impartiality, adherence to rules, honesty, transparency, and democratic principles. This definition conceptualizes fairness as equality of opportunity at the individual level, the impartial and honest enforcement of rules at the interpersonal level, and the embodiment of democracy in a transparent political system at the societal level. Our research contributes a nuanced understanding of fairness and its interconnectedness with related constructs, offering a foundational perspective that could enhance future studies in this significant field.

조사문항

Q#	Question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SQ1 SA ※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성 2. 여성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SQ2 SA ※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0대 → END 2. 20대 3. 30대 4. 40대 5. 50대 6. 60대 이상
	다음은 의사소통에 있어서 제시된 단어의 의미를 어떻게 인식하고 사용하는 지에 대한 문항입니다. 예시1) '민주주의'에 대해서 '다수결', '주권', '독재', '부정', '자유', '선거', '평등' 등 예시2) '사랑'에 대해서 '매력', '끌림', '배신', '이별', '따뜻함', '열정', '주고 싶은 마음' 등으로 인식하고 소통함 귀하는 '공정성'이라는 단어를 듣거나 사용할 때,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래의 공간에 기술해 주십시오. ! 여러분의 응답이 우리나라의 "공정"을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오니,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주세요.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A1_1
SA
*

귀하는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공정하지 않다
2. 공정하지 않은 편이다
3. 그저그렇다
4. 공정한 편이다
5. 매우 공정하다

Condition : all
A1_2
BF
* J

귀하가 앞 문항에서 우리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Answer:A1_1] 라고 응답한 근거나 기준은 무엇입니까?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A1_3
SA
* J

귀하는 우리사회가 공정하려면 이전문항에서 응답한 아래 응답값 가운데 가장 중요한(최우선) 것은 무엇입니까?

1. [Answer:A1.t1]
2. [Answer:A1.t2]
3. [Answer:A1.t3]
4. [Answer:A1.t4]
5. [Answer:A1.t5]
6. [Answer:A1.t6]
7. [Answer:A1.t7]
8. [Answer:A1.t8]
9. [Answer:A1.t9]
10. [Answer:A1.t10]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B1
MTS
* J

다음은 "이 세상이 공정한가?" 에 대한 개인 인식을 고찰하려는 문항입니다.

다음 제시된 내용에 대해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Item -----

1. 나는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
2. 나에게 일어난 매우 안 좋은 일들은 불공평하고 부당하다.
3. 나는 일이 잘 안 풀리는 편이다.
4. 마음씨가 안 좋은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가 많은 경우가 종종 있다.
5.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고 빠져나간다.

-----Choice-----

1. 1매우동의하지않음
2. 2
3. 3
4. 4그저그렇다

5. 5
6. 6
7. 7매우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B2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다른 사람들의 공정실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Item -----

1. 사람들이 부린 대로 보상과 처벌을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2.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報)를 받는다.
3.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사람들이 응당 받게 되어 있는 결과(報)를 받는다고 나는 생각한다.
5.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6.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7. 사람들은 자기가 받는 결과(報)가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
8.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

----- Choice -----

1. 1매우동의하지않음
2. 2
3. 3
4. 4그저그렇다
5. 5
6. 6
7. 7매우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B3



다음에 제시된 내용은 나의 공정실태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귀하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Item -----

1. 나는 내가 부린 대로 보상과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2.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報)를 받는다.
3. 나는 나에게 부여된 것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
4. 나는 내가 응당 받게 되어 있는 결과(報)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5. 사람들이 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한다.
6. 다른 사람들이 나를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생각한다.
7. 나는 내가 받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와 상관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절차를 따른다.
8.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과정을 거친다.

----- Choice -----

1. 1매우동의하지않음
2. 2
3. 3
4. 4그저그렇다
5. 5
6. 6
7. 7매우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C1_1
MTS
* J

다음은 어떤 상황 및 행동에 옳고 그름(是非, 잘·잘못)의 판단 근거나 기준에 대한 개인 인식을 고찰하려는 문항입니다.

다음에 제시된 기준이 귀하의 판단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em-----

- 어떤 사람이 감정적으로 상처 받는지
-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차별대우를 받는지
- 어떤 사람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러워하는 행동을 하는지
- 어떤 사람이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지
- 어떤 사람이 순수하지 않거나 품위를 지키지 않는지
- "조금 관련있음"을 선택해주세요.
- 어떤 사람이 연약하거나 취약한 사람을 돌보는지
- 어떤 사람이 공평하거나 공정하지 않게 행동하는지
- 어떤 사람이 소속집단을 배신하는 행동을 하는지
- 어떤 사람이 사회의 전통을 따르는지

-----Choice-----

1. 전혀 관련없음
2. 별로 관련없음
3. 조금 관련있음
4. 어느정도 관련있음
5. 매우 관련있음
6. 전적으로 관련있음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C1_2
MTS
* J

다음에 제시된 기준이 귀하의 판단에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Item-----

- 어떤 사람이 역겨운 짓을 하는지
- 어떤 사람이 잔인한지
- 어떤 사람이 자기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지
- 어떤 사람이 의리가 있는지
- 어떤 행동이 혼란이나 무질서를 일으키는지
- 어떤 사람이 신(神, God)이 허락할 만한 행동을 하는지
- 모든 사람의 사유 재산이 존중되는지
- 모든 사람이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

-----Choice-----

1. 전혀 관련없음
2. 별로 관련없음
3. 조금 관련있음
4. 어느정도 관련있음
5. 매우 관련있음
6. 전적으로 관련있음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C2_1
MTS
* J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Item-----

- 고통 받는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 정부가 법을 제정할 때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이다.

- 나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자랑스롭다.
- 모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권위에 대한 존중을 배워야 한다.
-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더라도 억압된 일이라면 해서는 안 된다.
-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동물을 해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 중 하나이다.
- 정의는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이다.
- 가족의 구성원이 나쁜 짓을 했더라도 나는 가족으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 남자와 여자는 사회에서 맡은 역할이 각기 다르다.
- 나는 자연이나 인간본성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다.

-----Choice-----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2개의 동의하지 않음
3. 3개의 동의하지 않음
4. 4개의 동의함
5. 5개의 동의함
6. 6개의 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C2_2

MTS

* J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Item-----

-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옳지 않다.
- 나는 가난한 아이들은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하고 부유한 아이들은 많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보다 집단의 팀원으로서 제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의무이므로 내가 군인이자면 상관의 명령에 동의되지 않더라도 그 명령을 따를 것이다.
- 성적 순결은 중요하고 가치 있는 덕목이다.
- 사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부를 누릴 권리가 있다.
- 사회는, 개인에게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때 가장 잘 작동한다.
- 정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 너무 많은 간섭을 한다.
- 정부는 개인의 자유와 선택을 제한하더라도 공동선(공익)을 증진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 부동산 소유주는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한 자기 선택대로 토지를 개발하거나 집을 지을 수 있어야 한다.
-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모든 사람은 각자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사람들은 선호하는 집단의 규범이나 전통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Choice-----

1. 전혀 동의하지 않음
2. 2개의 동의하지 않음
3. 3개의 동의하지 않음
4. 4개의 동의함
5. 5개의 동의함
6. 6개의 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1

MTS

* J

다음은 불공정한 상황에 대해 개인의 정서적 반응의 경향성을 고찰하려는 문항입니다.

귀하는 다음의 제시된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Item-----

- 다른 사람들이 과분하게 나보다 더 잘하면 나는 화가 난다.
-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인데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경우 나는 마음이 안 좋다.

3. 누군가가 그럴만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사는 것을 보면 나는 화가 난다.
4. 다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인데 누군가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경우를 보면 나는 마음이 안 좋다.
5. 내가 과분하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살면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6. 나에게서 쉬운 일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경우 나는 마음이 안 좋다.
7.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내가 잘살게 되면 나는 죄책감을 느낀다.
8.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는데 나는 편법을 쓰는 경우 나는 마음이 안 좋다.

-----Choice-----

1. 매우 동의하지 않음
2. 2
3. 3
4. 4 그저 그렇다
5. 5
6. 6
7. 매우 동의함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1

SA

※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고졸 이하
2. 대졸 이하
3. 대학원 이상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2

SA

※

귀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무종교
2. 개신교
3. 천주교
4. 불교
5. 이외 종교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3

SA

※

귀하의 정치 성향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보수
2. 중도보수
3. 중도진보
4. 진보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4

SA

※

귀하의 직업 및 전공이 법률과 관련 있으십니까?

(어떤 응답이든지 다음으로 진행되오니, 솔직하게 응답해주세요)

1. 매우 높다
2. 약간 있다
3. 없다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5 ☒ SA ☐ *	귀하의 가구소득 및 경제력 여유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Condition : all	
Type : Radio button	
DQ6 ☒ SA ☐ *	귀하의 거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1. 서울 2. 경기/인천 3. 대전/충청/세종 4. 광주/전라 5. 대구/경북 6. 부산/울산/ 경남 7. 강원/제주

연구총서 23-B-15

법적 공정성에 대한 한국인의 인지모형 연구

발행 | 2023년 12월

발행처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행인 | 하태훈

등록 | 1990. 3. 20. 제21-143호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전화 | (02)575-5282

홈페이지 | www.kicj.re.kr

정가 | 7,000원

인쇄 |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I S B N | 979-11-986225-0-1 93360

•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함.